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崇專引繼取消事件

一

平壤의 一無名靑年이 一金七十萬圓을 내걸고 崇實專門、崇義女學校의 兩校에 對한 引繼請願을 米國에 잇는 北長老會本部에 提出한 一件은 發表當時에 一大"센세이슌"을 이르키엇든 것이라 아직도 世人의 記憶에 새로울줄 안다。該君은 此一言에 依하야 大書特筆로 新聞에 오르고 平壤의 數千紳士淑女의 稱讚을 밧고 全朝鮮의 稱仰의 標的이 되여 不日之內에 一個無名으로부터 超有名線을 突破햇든것이다。그後 四個月만인 七月六日에 該君은 在米北長老會本部의 優柔不斷과 態度曖昧를 理由로 아니 理由라기보다도 口實로잡아 가지고 突然 前言取消를 言明하야 天下로 하여금 再次 啞然 驚愕할수박게업시 만들고 말엇다。아모리 時代가 顚倒되여 丈夫一言이 鴻毛보다도 가부엽고 毫末보다도 적은 時代라고 하들 先考의 遺志를 밧드러云云의 말까지 끌어 가지고 天下에 公言햇든 말을 그러케도 쉽게 飜覆하는것을 보면 此君은 如干 社會를 欺瞞한다는 程度를 훨신 지나서 實로 社會를 愚弄하는者로 볼수박게업다。

二

三校引繼問題에 對한 宣敎會側의 態度도 勿論 奇怪千萬이라고 할수박게 업다。彼等이 今日까지 可否間의 決定的 態度를 表明치 안코 잇는것은 該問題에 對한 一種의 消極的"보이코트"로서 暗히 經營權의 讓渡를 拒絶하는 態度로 解釋할수박게 업는 點도 잇다。그러나 彼等은 宗敎家 特히 全世界를 치고 보아도 有數한 宗敎인 예수敎信者들이기때문에 그러가 三校經營權의 引繼請願과 가튼 道理잇고 理致잇는 要求에 對하야 그러케 쉽게 拒絶은 참아 못하여하는 良心쯤은 아직도 남어잇다고 解釋할수가 잇다。이에 比해보면 例의 某君가튼 者는 物欲交敵에 依한 短氣的 態度를 鮮明히 만하는데 너무 急忿한 나마에 宣敎師會側에 도리어 口實을주어 드듸어 三校存續問題를 更一層困難且 惡化시킨것이다。이러케 생각해보면 該君의 食言行爲는 저 宣敎師會側의 態度曖昧보다 幾千幾萬倍나 더 무거운 朝鮮敎育界에 對한 罪過라고 할수박게 업는것이다。

三

어디까지든지 心臟이 强한 該君은 前言取消에 關한 理由를 說明해 가든 末尾에 『旣往社會를 爲하야 提供하기로 決心햇든 財産만은 달리 社會事業에 有用히 쓰도록하겟습니다。』라하야 社會一般의 視線을 緩和할 計畫으로 또한번 愚弄하고저 한다。그러나 그러한 欺瞞과 愚弄에 두번식이나 속을 사람이 어듸 잇슬것이냐? 于先보라 前言取消後에 『三校受繼가 不可能할것을 豫測하고 取消한것이면 그돈 七十萬圓으로 學校를 新設하면 어떠냐?』라는 崇實三校受繼後援會의 勸告에 對하야 彼는 『歷史잇는學校를 살려서 受繼한다는 意味와 다시 새로운 學校를 創設한다는 意味는 根本的으로 달려서 考慮할 餘地가 업다云云』의 오직 彼一人에게만 通할 論理를 弄하야 答을 回避하고 잇지 안는가? 存續學校와 新設學校와의 兩者가 根本的으로 다르다는 論理부터 彼아닌 우리는 모르거니와 이미 이 兩者間에도 根本的으로 差가 잇서서 그돈을 流用할수가 업다는 論理의 把持者 彼가 그돈을 그야말로 根本的으로 意味가 다를수박게 업는 敎育以外의 다른 事業에 내노키를 바랄수가 잇슬듯하냐? 우리는 彼를 爲하야 더구나 彼의 再發心을 爲하야 此文을 草한것이 아니다。오직 社會一般의 警戒거리와 言論機關으로서의 우리自身의 後戒거리를 삼고저 하는 衷心의 發露다。

西班牙叛軍政權을 交戰團體로承認?

獨伊兩國의海上監視隊復歸를條件으로 英、佛國政府에勸誘

【巴里六日發同盟】不干涉機構가 崩潰危機에 直面하게되매 英佛獨伊四國政府는 各各外交的手段을 다하야 局面打開를 折衝中인데 五日 白耳義首相 방·질란드氏의 倫敦訪問을 一轉機로 俄然形勢好轉을期待하게되엿다 佛國有力側에서 觀測하건대 英佛兩國政府는 獨伊兩國이 西班牙沿岸의 海上監視隊에 復歸할것을 條件으로 西班牙叛軍政權을 交戰團體로 承認하기로 意見一致된 模樣이다

以上妥協案은 近日中에 再開할 不干涉委員會에 白耳義代表가 提案할터인데 同案에 規定될 所謂 交戰權은 制限的으로하고 其構成은 西班牙領海三浬以內로 限定하는同時에 西班牙에잇서서 外人義勇軍을 可及的速히 撤收할것을 條件으로하리라고 解釋된다 假令 制限的이라도 英佛兩國政府가 叛軍政權을 交戰團體로 承認하면 從來政府軍보다 優勢한 叛軍海軍은 政府軍의海港을 公然封鎖할權利를 獲得하는同時에 政府軍及 外國의船舶은 一切 三浬領海內에서 拿捕될수잇게되는바 佛國政府로서는 叛軍政權의海軍이 佛國의根據地아프리카 植民地貿易을 阻害한다고 主張하야 反對하여왓스나 英政府의勸說로 佛國政府도 마침내 承認하게될것이라고 解釋된다

交戰團體로서의承認 叛軍政權各國에通告

【살라망가六日發同盟】不干涉體制의危機直面에對하야各國政府가 局面打開에 血眼이되여잇는 此際 西班牙叛軍政權은 六日突然關係各國政府에對하야 交戰團體承認要求의 通告를 發하엿다 通告內容은 六日라듸오放送으로서發表되엿는데 相當히 激越한論調로 다음과 가티 述하고잇다

西班牙叛軍政權은 各自政府가 國際法에 基하야 交戰團體로서 承認할것을 要求한다

右要求를 拒否하는 各國에對하야는 我等은 非友誼的國家로 看做하고 或은 一切通商의 門戶를 閉鎖할는지도 모르겟다

英獨蘇海軍條約 最後的意見一致

【倫敦六日發同盟】前般來 折衝中이든 英獨、英蘇兩海軍條約은 마침내 今回三國政府間에 最後的意見이 一致되여 目下條約正文을 起草中인데 今週中 느저도 九日까지에는 調印될것이라고 觀測된다

右兩條約은 모두 一九三六年三月의 英米佛三國海軍條約의趣旨에基하야 英獨英蘇間에 個別的으로 交涉을繼續하여오든것인데 交涉은 一萬噸級 巡洋艦建造數에關하야 獨蘇兩國間에 意見이 對立되여 一時停頓狀態에陷入하엿더니 結局 一萬噸級巡洋艦隻數에對하야는 條約中에 아무것도 規定치안키로하고 妥協이 達成될것이라한다

總督府異動發令

(咸南)總督府道理事官 牧山正彦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總督官房審議室勤務

(殖産局)總督府屬 信原明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命咸鏡南道在勤

(農務課長)總督府事務官 松澤龍雄
陞敍高等官二等
命總督官房外事課長

(審議室)總督府事務官 美根五郎
命農林局農務課長

(外事課長)總督府事務官 相川勝六
任宮崎縣知事(二等)

部長級大異動 八日附發令決定

【東京電話同盟】今次地方官異動의 重點이된 部長級異動은 드듸여 八日附發令키로 決定되엿다 異動範圍는 勇退組、總務部長以下二十名(發令濟十名)外에滿洲國에드러갈 一名을加하야 二十一名의 退官에伴하야 本省十名、警視廳五名、總務部長二十五名、學務部長二十名經濟部長二十一名 警察部長十六名 總數로는九十七名의 大異動으로 退官組二十一名을 加하면 百十八名에及하는 畫期的大異動이다

蔣介石西安半月記 ⑧

八個條項을提示코 蔣의承認을强要

十二月十四日(續)

午後네時에 楊虎城을 불려오라고 命하엿다 只今까지 나는 虎城이가 叛徒의 一黨인줄로는 알지못하엿다 내가 이變局을 어떠케 收拾하겟는가 무르니 楊은 『事件이 이와가티 擴大될줄은 몰랏다 委員長에 對하여는 무엇이라고 말할낫치업다 現在에는 오직 委員長의 命令에 服從할뿐이다 委員長께서 命하시는대로 할터이라』고 答한다。내가 다시 事變의 最初動機와 結果를 무르니 처음에는 極히 簡單하엿다고 말할따름으로 더 말하려 하지안는다 내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남에게 煽惑되여 이와가튼 害毒을 주리라고는 千萬뜻밧게일이다 그러나 나는 亦 責任은 免할수업다 나는 平素에 너무 信賴만하고 豫防手段을 怠慢하여 部下를 煽動케한 機會를준것이 이와가튼 變을 이르키게 한것이다 나는 곳 中央과 國民에對하야

謝罪

할터이다 그대들도 나를南京으로 送還하라 그리고 그대들도 中央에 罪를 請하야 國家에 累를끼치지안토록 事件의 擴大를 阻止하라 그대들은 반드시 救國大計에 一大蹉跌을 加한것을 아려야한다』고 하니 楊은 다른사람들과 相議하겟다고 말하면서 나간다

午後五時 도날드氏가왓다 나는 異國사람으로 遠路에 危險을 무릅스고온 그의 義侠에 感激하엿다 人事를 마친後 그는 내妻의親書를 手交하고 나와가치 留하기를請한다 나는 이를 承諾하엿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居處하는房은 매우 不便하고 健康에도 조치못하니 다른곳으로 移轉하기를 勸한다 張學良도 그때 나의거테잇다 그는 眞心으로

懺悔

하는비치 얼굴에나타난다 그가입을여러 『委員長께서 移轉 하시기를 承諾하시면 도날드氏와도 同居하실수잇고 모두命令에 服從하야 하로바삐 南京으로 送還하도록周旋하겟다』고 附言한다 도날드氏도 熱心勸告함으로 나도 더以上固執할수업서 午後에 高氏邸宅으로 移轉하엿다 나는 張이 그와가티 나의 移轉을 强勸하는 理由를 생각하여보앗스나 終是알수업다 그는 或내가 新城의 勢力圈內에잇는 新城大樓에 오래동안留하면 楊과接近하게되여 自己마음대로 날뛰게되지못할것을 두려워함이 아닌지도 모르다

내가 옴긴後에 張이왓다 『나는 이미移轉하엿스니 너는 나를南京으로 送還하기로 決定하엿는가 萬一아직 決定치 못하엿거던 곳、決定하여오라』하니 張은突然『이事件은 그리 簡單하지아니하다 本件에는多數한 사람이 參與하고잇슴으로 一切를 衆議에依하야 決定할수박게업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八項目의 要求가 滿電을 發하엿다 今回의 事件가 無意味하게 되지안케하기爲하야 數個條件을 承認하지안코면 안될것이다 萬一 何等結果가업다고하면 同僚들은 送還을 承認지안흘것이다』 所謂 八項目의 要求條件은 一、南京政府를 改造하야 各黨各派를 救國事業에 參加케할것 二、一切의 內戰을 停止할것 三、上海에서 逮捕한 愛國領袖를 卽時釋放할것 四、全國一切의 政治犯을 釋放할것 五、人民의 一切集會、結社의 自由를 保障할것 六、民衆의 愛國運動을 開放할것 七、孫總理의 遺囑을 確實施行할것 八、卽時救國會議를 召集할것

그의 말이 끗나기前에 나는 그의 背信을 責하고 『勿論 너이들의 主張은 아무 意義가업슴으로 더 말할것업다。그리고 너이들의 行動이 叛逆行爲인以上 누라서 너이들을 信賴하고 너이들의 主張을 支持할 사람은 업슬것이다』고말하엿다 張은 八項目의 要求條件에 說明을 加하고 나의 考慮를 切望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一身을

犧牲

하야 國家의 正義를 維持하고 仁義를 살리기로 決心하엿다。新城大樓에서 이미 詳細히 말하엿는데 어찌하야 아직도 깨닷지 못하는가 내몸은 俘虜로할수잇거니와 나의意志는 구필수업다 너의들의 要求는 一言半句도 드를수업스니 더말하야도 所用업다』고 張이 『그것은 너무專制的이다 나를 一個의人民으로 看做하고 國事에對한 意見을陳述할機會를 줌이 맛당하지안흔가』 말하매 내가 말하기를 『今日나는 國家存亡의責任을 背負하엿다 무릇民國의 忠良한 國民은 모두 中樞와 領袖의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領袖를 監禁하고 領袖를 强迫하는者가 어찌人民이라고 自稱할수잇슬까 況次軍隊를 統率하는 軍人의몸인 네가 어찌 人民으로 自處하랴 今日國家를 危害하는者는 모두 나의敵인 同時에 國民의

公敵

이다 萬一네가人民의資格으로말하려 하면 國民大會나 或은 地方議會에가서하라 政治及黨의組織系統으로보던 너는 너의意見을 合法的으로 中央에提出할수잇다 너이는 叛亂을 이르키고도 速히悔改할줄모르고 所謂國事에對한意見이라는 名目으로 너이들의 非行을 掩蔽하려한다 如何間 내가 南京으로 歸還하지안코는 어떠한條件 어떠한主張을 勿論하고 議論할수업다』고하니 張이 『萬一南京으로 歸還하면 中央에提出하겟는가』 무르매 『이提案을 中央에 提出하는것은 許諾하겟다 그러나 나는 너이들의 主張에 賛成할수는업다』고 對答하엿다 張이 다시말하기를 『閣下가 賛成치안흐면 提出한들 무슨所用이잇겟는가』 내가말하기를 『黨에는 規律과 議事規則이잇는以上 내가

獨斷

으로 할수업다 可否는 오직多數에依하야 決定될것이다』 張은 얼마동안 默默하고잇드니 다시입을 여러 『委員長의 人格은 참으로 偉大하다 그러나 다만한가지 遺憾인것은 委員長의 思想은 너무 右傾이오 너무 舊式이다』라고 말하매 내가 『무엇이舊式이요 무엇이右傾인가』 무르니 그는 茫然히 서잇다

日滿兩國合辦으로 滿洲拓殖會社設立決定

日本人의移住를助成하고滿洲國土를開發 資本金、五千萬圓으로

【新京七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七日午後二時臨時閣議를 開催하고 滿洲拓殖公社設立에 關한日滿兩國間의 協定에對하야 審議한結果 日本人의 移住를 助成하고 滿洲國土를 開發하야써 兩國의 緊密不可分關係를 益益强固케하기爲하야 日滿合併의 株式會社滿洲拓殖公社를 設立하기로 決定하엿다 公社의資本金은國幣五千萬圓으로 日滿政府各一千五百萬圓 滿鐵一千萬圓 日本民間一千萬圓의 出資에 依하야 現在의 滿洲拓殖會社를 그대로接收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同社는 이밧게

一、日滿兩國政府連帶保障下에拂込하고 資本金의十倍에限하야社債를發行할수잇슴을得함

一、滿洲國政府는 公社에對하야 登錄稅、法人營業稅、契稅、木稅、特産稅를免除함

一、日滿兩國政府는 公社의業務를 監督하기爲하야 新京에滿洲拓殖委員會를 設置하고 兩國政府에서 各其委員을 任命함

同委員會는 必要에 應하야 滿洲國에잇서서 移民에 關한 一切의 事項에 對하야 兩國政府에 建議할수잇게되엿다

001396

教育審議會

官制案其他近日中正式決定 目的達成에教育界危懼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六日閣議에서 教育審議會를 新設하고 義務教育二個年延長問題를 爲始하야 教育及學制全般에 亘한再檢討를 加하기로 決定하고 近近官制案及 審議事項等을 正式으로 決定하고 이에要하는 經費는 追加豫算으로서 特別議會에 提出하기로하엿다 그런데 그設置와 同時에 林前內閣이 設置한後十二名의 委員만을 任命한대로 只今까지 아직一回도總會를 열지안코 그대로 되여잇는 文教審議會는 廢止하기로되엿다 教學刷新、學制改革가티 重大하고 恒久性을 가진 政策을 調査審議할 機關이 內閣이 更迭될때마다 朝令暮改됨에 對하야 一般識者는 자못不滿을 抱懷하고잇스며 安井文相도 近衛內閣뿐만아니라 二、三代의內閣에 亘하야 制度改革은 一貫한 方式으로 繼承하야 文教百年의 計畫樹立한다고 聲明하면서 實行치못하엿다고 大端히 努力하는中이나 新設하는教育審議會에서 그與否에對하야 教育界는자못 危惧의念을가젓다

大野總監十五日渡東

大野政務總監은 來二十日부터 열릴 中央經濟會議及 二十三日부터 招集될 特別議會에 出席키爲하야 來十五日頃 京城發渡東하기로되엿다

輸入超過에對해 元田顧問官質問

七日樞府本會議席上

【東京電話同盟】七日樞密院本會議席上 元田顧問官으로부터

一、本年度上半期貿易狀況을 觀察하매 六億이란 輸入超過를 示하야 貿易調整이 暴行치못하엿다 이것은 極히 寒心에 不堪하는바 政府는 무슨對策을 갓고잇는가

一、司法省은 新時代에 適應한 諸法制를 改正키爲하야 調査部를 新設한다고하는데 司法官이 硬化하여도 조치못하나 또 一面 俗化함도 大端히 考慮할것인바 當局의方針如何라고 質하엿다 이에對하야 賀屋藏相이 缺席이기때문에 吉野商相및 鹽野法相으로부터

一、輸入超過에 對하야는 大端히 超過한 數字를 示하엿스나 이는 要컨대 物價騰貴도잇서 반듯이 數字만으로憂慮할 必要는 업스나 將來貿易調整에 對하야는 萬全을 期하련다

一、法律制度의 改正에 對하야는 委員會를設置하고 各方面의權威者의 意見을 徵하야充分히調査研究하기로 되엿스므로 司法官이 俗化한다던지或은一方에 偏하는일은 업슬것이라고믿는다고 答辯하엿다

半截河射擊事件 蘇聯에嚴重抗議

【哈爾濱六日發同盟】東部滿蘇國境半截河東南方劍山附近의 蘇聯兵의 日本監視所不法射擊事件에關하야 滿洲國外務局駐哈特派員公署에서는六日午後四時駐哈蘇聯總領事代理스데쓰오프氏의 來訪을 求하야 外務局의 訓令에基하야 蘇聯側의 不法行爲에 對하야嚴重히 抗議하고 蘇聯側의 反省을 促하엿다

人事·集會

◀松澤龍雄氏(新任總督府外事課長)東京出張中 十二日午後歸任豫定
◀原田大六氏(新任警務局保安課事務官)八日午後九時廿五分 京城驛着赴任
◀森浩氏(同上)十日午前八時七分京城驛着赴任
◀稻田壽生氏(新任木浦警察署長)九日午後二時四十分京城驛發單身赴任豫定

夕刊後市況 七日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八七〇〇 先限 八六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三七〇 先限 八四〇〇

朝鮮民事令改正에對한 小委員會를設置

司法法規改正第一回調查會

總督府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第一回會議는 今七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 開催되엿는데 委員長大野政務總監以下委員으로서 增永法務局長 大原法務 水田財務 西岡地方行政長 小川高等法院長 野村平壤覆審法院長 宮本京城地方法院長 富田同檢事正 安田城大教授 李範益 李升雨 兩中樞院參議等이 出席하야 먼저大野委員長으로부터 調査會設立의趣旨및 構成等에關하야 人事가 잇슨後 增永委員으로부터 今後 調査審議方法에 對하야說明이잇섯고 第一로 着手할 朝鮮民事令改正에 對하야 親族相續의 習慣法에關하야 小委員會를 設置하고 原案을 作成하기로하고 左의四氏를 小委員에 任命하고 同十一時散會하엿다

宮田、渡邊兩高等法院判事 宮本 京城地方法院長 小野法務局法務課事務官

大野委員長인사

過般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官制를 發布하고 委員을 任命하고 今日玆에 第一回委員會를 開催함에 際하야 一言所懷를 述코저한다

朝鮮에잇서서 司法法規는 日韓倂合以來 歷代當局에依하야 着着整備되여 半島民衆의 法律生活에 顯著한向上을 齎來하엿스나 아직도 遺憾되는點이잇다는것은 否認할수업다 더욱 日新하는 社會進步에伴하야 此等法令中改廢를要할것도 不少하고 彼此相俟하야 現下朝鮮에잇서서 制定改廢할必要가잇다고 認定하는 司法法規는 다만一二에 멋지안는다 特히 當面의 急務로 指目되는것은 朝鮮人의 親族、相續에關한 慣習의再檢討와 其成文化의事業이다 從來此點에對하야 慣習이不明瞭한點이잇서서 一般民衆이蒙하는 不利不便은 想像以上으로 甚한바잇서 慣習을 成文法으로 制定할것이라는것은 모두 要望하는바이다

日本內地에 잇서서는 民法親族、相續編의 改正事業이 크게 進捗되여 이미 其大綱에 對한 成案을 엇게되엿슴으로 朝鮮에서도 이機會에 現行慣習을 檢討하야 現代社會生活에 卽한 適切한 成案을 어더 이要望에 應하야 餘他의 司法法規에 對하야도 改廢를 考慮하야 漸次調査를 進行하야서 其完璧을 期하려고 思한다

그러나 法令改正事業은 非常히 困難을 伴할뿐만아니라 其改正의 當否는 直接民衆에 多大한 影響을 與하고 特히 前述한 慣習의 成文化와 如한것은 其重大性을 痛感하는바이다 따라서 其調査의 愼重을 期할것은 勿論 本委員會設置의趣旨도 亦是이에잇다

各位는 本務多端함을 不拘하고 ... 以上의 趣旨를 諒解한後 本委員會가 所期의 成果를 收하도록 充分協力하기를 希望하야 마지안는다

金融調整問題 中央과의諒解成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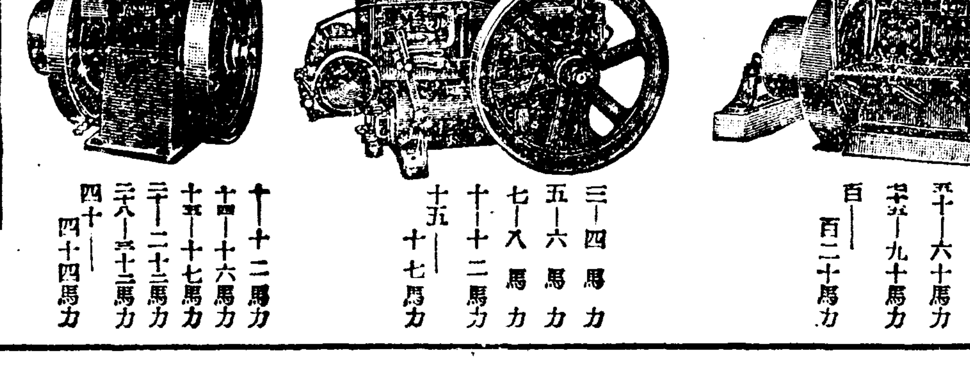
昨秋에 열린產業經濟調査會의 要望에 依하야 朝鮮內의 金融機關聯絡調整에 關한 金融調査會의 設置에 對하여는 總督府財務局에서 愼重히 研究中이든바 今回 南總督의 渡東으로 大綱에 亘하야 拓務省方面과도 諒解를 엇게되고 東拓의 企業金融과의 關係에 어느 程度로 明確한 分野를 決定하게되며 近近渡東할 大野政務總監과 中央部와의 事務的 折衝에 依하야 解決을 지을豫想이 서게되엿스므로 따로金融調査會와 如한 機關을 設置치안코 總督府가 民間金融界의 意向을 質問하는 程度에서 具體的立案에 着手할 意向이다

小兒良藥 本舖
樋屋奇應丸
히 야 기 응 환

이金粒 이神効
救急—瀕死兒를蘇生식힘
治病—諸病苦를瞬時에鎭定함
保健—先天性弱質을强化함
人類의驚異 實驗者의瞠目
이러한경우에! 먹여주십시요
간기, 회가잇는아해
감기열, 체열이잇슬때
젓안먹고, 밤에울때
경기, 기절할때
토유, 청변, 하독에
종두, 홍역때에
소화불량한약한아해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五圓 外에 德用包 一圓 十圓
無代進呈 育兒之友 新聞名記入申請에
大阪天滿橋 本家 樋屋合資會社
12—K13

新譜 레코—드 十枚에 壹圓 極東洋行 京城仁寺町

高等文官養成テレパカルト
小學校 中學校 女學校 卒業者가 成功の登龍門
日本に初めて出來た遠隔感應教授
高等文官・判任文官・・・養成
帝國法政大學院 校外生(募集)
非獨學式通信教授
●텔레파컬트란 Telepakult
遠隔實感直接個人式教授를말함이니、從來의通信教授와가리獨學式講義錄教授가아니며容易하고實力의徹底를期하야틀림업시高等文官判任官、辯護士、計理士等資格을獲得할수잇다
▼講義錄式通信教授に於て實感教授
▼自宅に居ながら直接個人式教授
▼專門學科と共に中學全科卒業
●法律學全般 ●普通學全般
系統的教授と共に判例式教授 セミナール的徹底的教授
=進路=
❶高等文官・判任文官資格獲得
❷辯護士・辨理士・計理士資格獲得
❸僅々十四ケ月にて中卒資格獲得
❹高文豫備免除資格獲得
❺委託大學生・受驗生の救濟
自宅修學으로하려는諸君
從來의講義錄으로서는初式通信教授에失望한사람은中止하고遠隔感應教授를알라그러고問則案內書에依하라
◇規則書及入學案內 至急—葉書로請求次第送呈함
東京市下谷區上野櫻木町九
帝國法政大學院
▼于先規則書를即刻請求하라

ヤンマーディーゼルエンヂン
內燃機界ノ霸王
絕對吳火紙其他準備操作ヲ要セズ
他機ニ比シ燃料消費量絕對僅少
一時間一馬力當リ一錢強

三—四馬力 五—六馬力 七—八馬力 十一—十二馬力 十五—十七馬力
三十五—三十六馬力 五十五—六十馬力 八十五—九十馬力 百—百二十馬力
十—十二馬力 十四—十六馬力 十五—十七馬力 二十一—二十三馬力 三十八—五十二馬力 四十—四十四馬力
型錄 贈呈
大量製產・在庫豐富
京城府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電話本局一〇〇三番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若劇
冷房完備
1 ジヤングルの女王 2·00 6·55
2 東日・大每ニユース 3·15 8·10
3 良人の貞操前篇 11·00 3·35 8·30
4 良人の貞操後篇 12·30 5·05 10·00
(一)パラマウント作品・ドロシラムーア主演猛獸映篇 (三)(四)P・C・L作品 入江たか子高田稔・千葉早智子主演 前後篇同時上映
九日ヨリ四日間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團成社
八日부터十二日까지 十時半、一時半、六時半 料金大人五〇錢 小人三〇錢均一
●컬럼비아超傑作 監督、노一망·타레오一드 主演、핑·크로스비 루이즈암스트롱
輕快한리즘으로엮어진뮤지칼音樂喜劇!!
●新興키네마京都撮影所特作品 黃金의비 監督 木藤茂 主演 大谷日出夫 市川男女之助 森靜子
寺子屋 其他幹部俳優總動員
●大阪每日世界뉴一스
讀賣新聞發聲뉴一스
次週 라모나、비오는날의午後、本新七不思議

小作調停申立件數
昨年中「九千三百餘件」
前年보다千九百餘件이激增
解決은四千九百餘件

극히 례외한 소작관행(小作慣行)때문에 이러나는 각지의소작쟁의가 소작조정령에 의하야 재판소로 모이는건수가 해마다 느러가는중 작년중의 조정신립(申立)은 실로 구천삼백칠십건의 다수에 달하야 전년의 칠천사백사십사건보다 일천구백여건이 느럿다 이조정신립건수를 보면 소작인측에서 신립한것이 구할팔분이고 그종류는 소작권에 관한것이 팔할팔부이고 소작지 소작료기라에 관한것이일할이분이다 조선의 소작사정이 지주가 일방적 권리만주창하야 소작인을 압박하고 잇슴에 소작문제의 악화한 전반적리유가 잇슴은 누구나 아는바이나 전기의 사정으로보아도 소작인들이 소작권의 이동방지 소작권의 회복을위하야 얼마나 고투하고 잇는가를 알수잇다 조정신립의 결과 재판또 조정성립되건수에 권해(勸解)성립에인한 종료사건등 소작조정제도에의한쟁의해결 건수는 사천구백사십칠건으로 긔제건수의 오할사분에해당한다 그런데 작년들어서전년보다 조정신립 건수가그가티증가한것은 소작인계급이농지령등 소작법규에 대한리해가향상하야 소작권의 주창을보다 더강렬히 하게되것과 도입방에 느는작년삼월에 소작조정령을 일부로 정하야 종래합의부(合議部)가 잇는재판소에만 처리할수잇는것을 단독지청(單獨支廳)에서도 취급할수잇슴까닭에 소작인측의 조정신립이 더만허진때문이다

永登浦大盜就縛
窃取한贓品가지고移動露店내인
前科二犯의羅成男

지난 사월사일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사백칠십이번지 리만춘잡화상(李萬春雜貨商)에서 사백여원의 절도피해사건이잇슨것을필두로 륙월이십칠일까지의사이에 동정사백삼십삼번지 영생덕(永生德)잡화상에 전후두차례로 륙백여원 동정삼백사십삼번지 리평운잡화상(李平云雜貨商)에오십여원 동정사백칠십사번지 황인봉잡화상(黃仁鋪雜貨商)에륙백여원의 도난사건이 계속적으로 빈발하므로 영등포 경찰서(永登浦署)사법계형사대 대중부장(大重部長) 문(文)영전(永田) 량형사는면목에걸리는 이십상치안훈 절도범인 검거에착석을 이저버리고활동을 계속하기 수주간에 드듸여 륙일오후세시 영등포우편소(永登浦郵便所)압 우시장(牛市場) 부근을 배회하는 범인을 체포하기에 어르럿는데 범인은시내영등포정에 현주하는 전남 화순군외북면오리(全南和順郡外北面五里) 출생의 라성남(羅成男)(二三)으로 일즉이 개성소년 형무소와 전주 형무소에서 절도죄로 각일년간 복역한 결과 이번의 범행시초에 전주형무소를 출옥하자 즉시 길이 내치되는 절첩식(折疊式)장도(長刀)한자루와 휴대천기 기타절도의도구를 준비하여가지고 대개야 삼월부터서 전기각상점을 단독으로 침해하야 산업이처럼 훔쳐내인장물은 손구루마 지게등을리용하야 교묘한 방법과 수단으로곳곳에 이동로점(移動露店)을 개설하고 야간에 당당히 팔어먹다가 동서형사대의손에운이다하야 마침내 검거된것이다

(사진은본인)

六月中의屠獸
二千九百七十頭

륙월한달동안에 경성도수장(屠獸場)에서 최후의 운명을 지은동물의 수효는 합게이천구백일흔두머리엿는데 작년륙월에비교하면 일백열여덜머리가 더만헛다 ▲소는 일천칠백수물세머리어며 ▲도야지는 일천일백수물아홉머리이며 ▲말(馬)은 여섯머리어며 ▲양(羊)은 한머리이며 ▲개는 륙십여덜머리이엇다

家禽"페스트"釜山侵入
京城府勸業係業者에豫防警告

한동안 일본내지에서 만히퍼저서 양계업자에게 큰공황을이르킨 가금(家禽)"페스트"(黑死病)가 요지음에 바다를건너 부산(釜山)에 침입하야 점점전파되고잇는데 부산과 경성과는 농작물을 비롯하야 채소 계란기타 일반화물의 거래가빈번한터이므로 어느때에 이병균이 떠지게될는지 알수업는형편이고 또한 장마때에 잘퍼지는것이므로 경성부권업과(勸業課)에서는 륙일에 부내각양계업자에게 대하야 예방을하라는 경고를하엿다 부내에잇는 양계자는 일천삼백오십호이며 기루고잇는 닭의수효는 약오만머리나되는터이므로 자못 공포를 느끼고잇다

下村博士講演

팔일오후네시반 시내태평통 조선일보구라부회관에서 귀족원의원 법학박사 하촌굉(下村宏)씨의 강연회가잇다고한다

培光學院에 中等科新設

부내신당정(新堂町)사백번지배광학원(培光學院)에서는 오는팔월초일부터 상업과(商業科)와 중등과(中等科)를 신설하기로되어 오는 칠월말일까지 생도를 모집 할터이라는데중등과는 고등보통학교 입학준비과관이오상업과는 졸업후곳사회에 나아가서 점원사무원등의 취직을할수잇도록 교수할터이라한다 그리고 그학교에서는 신호야전상회(神戶野田商會)에 교육영화를 특아하야 수시로 생도또는 학부형들에게 공개하야 교육과위생사상을 보급하도록 할

雨圈內에든朝鮮
颱風은黃海上에서去勢되고
旱魃念慮는完全解消

【仁川】작륙일 양자강(揚子江)중류에잇든 태풍(颱風)이 동진(東進)한다하야 그피해가 저윽이 근심되드니 전기태풍은 황해(黃海)상에일음으로부터 그세력을 전연이저버리여 조선에는 아모러한 피해도업시 무사하얏슴으로 풍작의 구가를또한가지 전하야 주고잇다 따라서 금칠일현재의 기압배치(氣壓配置)를 보건대 본주(本州)서방(西方)으로부터 조선남단에 미약한고기압이 잇스나 우세한칠백오십"미리"의저기압이 양자강에잇고천진(天津)지방에 또한칠백오십사미리의 저기압이잇서 조선은우권(雨圈)에차여잇슬뿐아니라 이로서 확실한림우기(霖雨期)에들엇다한다

木船顚覆
船客二名行方不明
七日仁川永宗島에서

칠일아침 황해도벽성군석포항(石浦港)을 출범한 삼신기선회사(三信汽船會社)소속의기선 갑제환(甲濟丸)이 이날오후여섯시오십분경에 인천(仁川)바다 영종도(永宗島)에 도착되여서 그선객을 뚝배로 상륙식히든중 배가여울에 걸려 전복되여일한명이물에 빠젓는데 그중아홉명은 구조되고 두명은 행방불명이되엿다 소관인천서(仁川署)에서는 보안주임이 곳현장에 출동하야 경계중이라한다

强盜團三名送局

【咸興】 흥남시민(興南市民)을불안케하든 삼인조강도단이 일망타진되엿으니 흥남부천기리(興南府天機里)에사는 김영주(金永柱)(二七)등은 그동안 흥남 경찰서에서 취조를밧고잇든바 오일강도상인주거침입등 죄명으로 송국되엿다 그들은 공모하고 오월삼십일오후열두시 흥남읍하덕리(興南荷德里)사전(寺田)씨집에 들어가 단도로 위협한후 현금륙십원을 빼아슨것을 비롯하야 일주일동안 거듭세번의 강도질을하엿다

國旗宣揚會
十一日에記念式

대일본국기선양회(國旗宣揚會)조선본부에서는 국기제정팔십삼주년기념일인 오는 십일일 오전여섯시반에 조선신궁에서식을 거행하고 길전(吉田)신궁궁사의 강연이 잇슬터이라한다

假刑事노릇하고 藝妓를빼돌려

가명사노릇으로 포주를속여 예기를 빼여가지고 가다다려난일—부내영정(榮町)삼정목오번지 예기두는집 백영(百榮)방에 립천(立川)다쓰꼬(二一)이라는 미묘의 예기가 전차금사백원에 팔려와잇는데 지난칠일오후령시사십분쯤 삼십세가량된 일본내지인 두명이 전기 백영방에드러와서 "나는 경찰서 사람인데 취조할 필요가잇스니 쇼단을 다리고 가겟다하야 다리고 나간뒤에 종적을 감추엇다 나종에야 속은줄을 알게된 포주는 각서에 수색원을 칠일오전에제출하엿다

헌自動車가 商店에突入

폐차(廢車)하여야될 불완전한 자동차가 상점을드러바든 진사고—륙일새벽두시사십분경 종로삼정목 일백이번지 압큰길을 서대문쪽으로달리든 종로삼정목경화(京華)택시운전수 김병찬(金炳贊)(二七)이가 운전하든 경성구천구십삼호차가 아페 오는 자동차를 피하야 급진을 하다가 가려치라「한길」니 맛다듯지안허 동번지 칠三六사 김상철(金相哲)(三七)의 상점을 드리미러 십여원의 손해를 이르나 소관종로서에서는 이외가티 헌차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운전수에게 엄중한주의 운전정지 처분을 하는동시에영업자에게 엄중한주의를 시켯스며 일반관내에잇는 일반영업자에게도 엄중한경고를 보내여 이전불량차량을 쓰지안토록 한다고한다

大海堂印刷職工
二百餘名이怠業
賃金引上等三條件을提出코

조선인쇄주식회사와밋 근택(近澤)인쇄소직공들의 임금인상요구가 잇슨뒤를이어 칠일오후한시에 부내태평통이정목 대해당(大海堂)인쇄주식회사직공 이백오십여명이 또 태업(怠業)을 시작하야 당국자를 놀래게하고잇다 전긔대해당인쇄주식회사직공이백오십여명은 칠일정오에 직공회의를열고 공무원들의 위생시설개선 물가고등에 따라 임금이할이상 제일 제삼정휴일(定休日)을 출겻등세요구조건을결의하야 회사당국자에 제출하고 오후다섯시까지 회답을 하여달라고 요구하다가 회사측의 대답이 여의치안하지 그들은 일제히 일을 중지하고 태업을하기시작하야 동맹파업을 할기세를 보혓다 이급보를 바든 소관본정서에서는 곳선동자라고인정되는 직공다섯명을 불러다가 배후관계를 조사하는동시에 원만히 해결시킬방침을 강구중이라한다

高物價時代의泡沫
"條件撤回코 就業키로……"
播本社長 談

칠일정오시간에 면사람이 주동이되야 아마임금인상등 세조건을들어 회사측에 요구하기로 된 모양입니다 그들은 요구조건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안코 별안간 일을 안하는것은 자못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회사는 오월에대개 일년이상된 직공들에게 오전으로부터 이십전까지임금을 올렷습니다 그때에 올리지안흔 직공은 대개 들어온지 몃달식안되는사람들로서 처음들어올때에 전보다 좀비싼 임금을 주어왓습니다 견습직공은 이십오전짜리도 잇슴으로 그들의 생활상태를 생각하야 다소올려줄생각도 하여왓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알만큼 이야기하엿드니 그들은 회사측의 의사에 맛기고 무조건으로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내일부터 취업키로되엿스며 경찰서에 몰려간사람도 다도라와서 해결이 되엿습니다 운운

佛敎會館建築
工費二十萬圓으로
朝鮮佛敎協會事業

유하광풍(有賀光豊)씨를 비롯하야 불교관계자오십여명이 륙일오후네시부터 조선"호텔"에 회동하야 조선불교협회(朝鮮佛敎協會)를 창립하얏다는데 그회의내용인즉 약이십만원의 예산으로 경성에 불교회관(佛敎會館)을건설하야 강연기라불교집회기관으로쓰도록 하는일방 또불교학료(佛敎學寮)를 건설하야청년불교도의 완전한 기숙기라휴양기관을 만드는등 조선불교진흥의 유기적기관이라는데 전기회관건축 예산중 십만원은 동경(東京)원전적선회(原田積善會)에서 이미기부가드러왓스며 나머지십만원은 그회간부들이 부담하기로되엿다고한다 그리고회장 이하간부는 다음과갓다

▲會長有賀光豊 ▲副會長矢鍋永三 朴榮喆 ▲理事林茂樹 富永文一 白井誠允 藤原喜藏 ▲幹事金大羽

京城府方面委員聯合總會

경성부방면위원련합회에서는 오는십팔일 오후두시에 경성부민관에서 제이회총회를 개최할터이라한다

土地價昂騰을 嚴重히取締
取締法令制定까지考慮中
南總督歸任談

수년래 각처토지시세가 폭등하야 총독부에서는 마침내 각종수금융기관으로하야금 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야 그폭등을 억압적으로 견제하고잇는것은 어머세상이 다아는바어니와 이에대하야 칠일아침에동경(東京)으로부터 귀임한 남총독(南總督)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최근땅갑이 폭등함에따라 각처에 여러가지 폐단이상당히 만흔모양이며 특히 각사업지대에"뿌로카"들의 암약으로 땅갑이 천정을모르고 폭등하야 대재벌의 투자를 방지하게되며 조선산업의 개발을방해하게된다 그리고 각신흥도시에 또한"뿌로카"와 간상배들의 발호로 도시발전을방해하게된다 이것이 모두최근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인데 이에대하야는 금후 엄중히취체하야 땅갑의폭등을 철저히억압할방침이다 만일 엄중취체에도 불응하는경우에는 이에대한 취체법령의 제정도고려하랴한다

電車와自動車
側面衝突

칠일오후 열시오십분경에 부내 광화문통(光化門通)체신국(遞信局)압헤서 그엽헤잇든『사쓰마택시』운전수 신도인(申道仁)(二二)가 운전하는 경(京)구천삼백사십호가 안국정행 전차일백십사호의 뒤에 쪼차가다가 잘못되여 측면충돌이되여 자동차가 엽대기가 부서지고 전기운전수는 머리에경상을 당하엿다 전차도 발판이파손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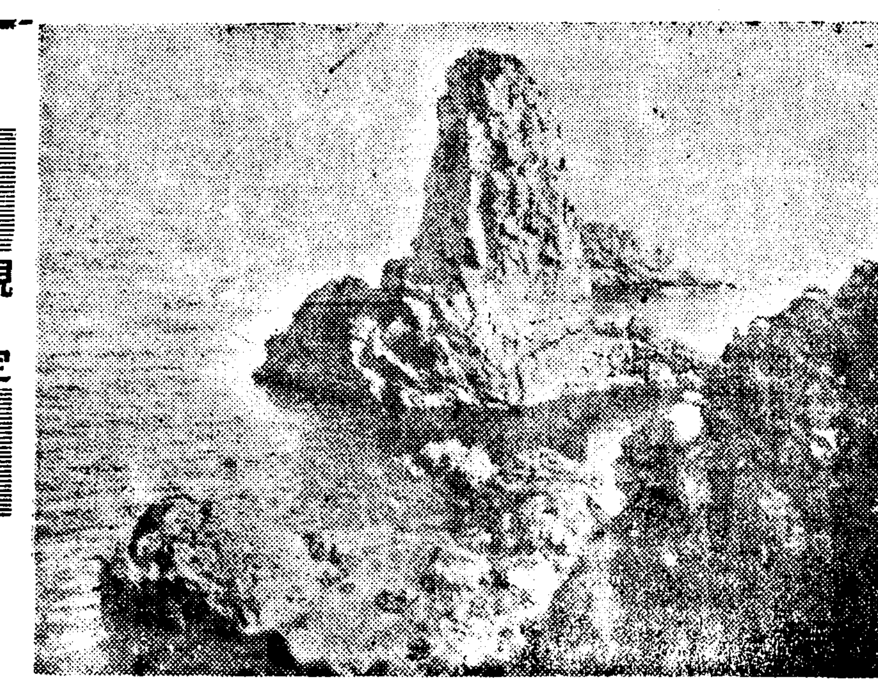
집돈훔저서 戀愛逃避行

충북충주읍대수정(忠州邑大手町)이십오번지 부호의아들 리상준(李相俊)(一九)이가 칠일오후령시경에 충주읍룡산리(龍山里) 사는 권녀률(權樂律)(一九)이란 소녀와 손을잡고자기집돈 이천오백원을 훔처가지고 도망을가버리고말엇는데 기차를타고 경성으로온 흔적이잇다하야 시내각서에 그수사원이들어왓다

「이여하트機」 大搜查陣
航空母艦도出動

【호놀루루六日發同盟】 태평양상에서 조난한『이야하-트』비행긔는 미국군함이하 총출동의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알지못하므로 드디여 칠일새벽을 기하야 비행기에 의한수사를 개시하기로 되엿다 항공모함『코로라드』호가 적재한 비행긔는 이미출발준비가 다되여 연안경비정『이다스카』호도『하우란드』섬백『마일』이내의 지점에서『코로라드』호로 부터 연료보급을 바다 바다와공중이 서로 호응하야 필사의 수사진을 펴게되엿다 대체로『하우란드』섬남방에 수사진을펴고『페닉크스』섬방면으로향할예정이다

漢拏山探險團員募集



(사진은 서귀포의 절경)

規定

團員數 五十名限
參加金 四拾圓(船車費宿泊料一切)
日程 七月二十四日京城出發、同三十日朝歸京(船便關係로變更)
踏查地 木浦、濟州、三姓穴、市塲、海女作業、西歸浦、正房瀑、蛇穴、榧子林、觀音寺、白鹿潭、頂上、靈室、椎茸栽培塲、多島海、麗水制勝堂、南原廣寒樓
마금 七月十五日까지(期日前이라도滿員되면마금함)

本社는 昨年夏間에 聖嶽 白頭山探險을 主催하야 各界專門家들의 翕然한 支持를 어더 學界 또는 登山스포-츠界를通하야 적은貢獻이나마 드린바를 삼가 즐거햇거니와 今夏도 이方面의 繼續事業으로 南溟의 靈峰 漢拏山探險을 決行하게되엿습니다。

아득한 녯날로부터 三姓神話를 싸고도는 南海의 絶島 濟州島는 詩의나라 꿈의나라、橘香이 서린 桃源境으로 일커러온 耽羅以來 平和의海鄕이올시다。

海拔 六千七百八十五尺의 漢拏山은 白頭山과 아울러 朝鮮의 南北 兩極에 鎭座하야 이땅을 마주 붓들고잇는 兩大天柱로 白頭山이 男性的 主峰이라면 漢拏山은 女性的鎭山일것입니다。

亞熱帶 氣候의 山麓으로부터 正寒帶氣候의 山頂에 미치기까지 叢生한 植物은 그 엄청난 多種임에 잇서서 이미 世界的으로 聲價가 認定되여 內外 博物學者들의 垂涎해 마지안는 聖地가되엿고。

一面 正房瀑布 西歸浦를 비롯하야 沿岸의 奇勝絶景과 三姓穴白鹿潭을 中心으로 由緖 아득한 名所古蹟은 史家들의 巡杖을 애타게 기두리는곳으로 本社는 이 微擧를 機會로 一般 參加者도 雙手를 들어 歡迎하는바이지마는 될수잇스면 動物、植物、地理、地質、歷史等 各門에 專攻하는 學徒들로서 이 機會를 보람잇게 利用해주시기를 한결 더 勸하는바입니다。

朝鮮日報社

여름은健康破壞者 金城鐵壁百補丸

百補丸은여름에안쓸수업다
身體가虛弱하면肺病도慢性胃病도神經의異狀도生하기쉽다

百補丸을 服用하야 全身五臟六腑 諸機關의 抵抗力을 强化식히시요

一、百補丸은 人生의原動力인 心臟을 튼튼케하는强心作用을하며
二、全身의 養分을分配하는 胃腸을 튼튼케하야 滯症을 물니치고 食慾을 旺盛케하고 消化吸收作用을 强하게하며
三、全身組織의 根本棟樑이되는 筋骨을 튼튼케하야 體力을增進식히며老衰를 防止하고 精力分泌作用을 旺盛케하며
四、全身活動의 中樞機關인 頭腦를 健全케하야 神經衰弱 不眠症 乃至性神經衰弱等을 解消하고 一切精神生活을 强靭케하며
五、全身의新陳代謝를旺盛케하는 肺臟을 튼튼케하야 모든 結核菌의 低抗力을 强하게하며 潤肺生精、造血補陽하야 人生의 最大不幸인 靑春病을 一掃하고 興味津津 最大의 滿足한 生活을 맛보게합니다

右記五大効力을가진 百補丸이 補藥界에서斷然第一이라고하는것는

一、朝鮮社會에서 가장信用할수잇는 京鄕各界朝野名士諸氏가 임이 先服하고 그特効를 賞讚 推奬한事實과
二、海內海外大衆이 비빨가치 歡迎하고 四面各處에서 更生의 깃분마음으로 感謝狀을 보내는事實과
三、朝鮮藥業界有史以來 百補丸이最高의 賣上記錄을 突破한事實이『百補丸의 偉大한 効力은 補藥界의 斷然第一』이라는것을 雄辯으로 證明하는 것입니다 조곰도 躊躇치말고 疑心치말고 服藥에 가장 適切한 時期인 只今곳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四、더욱이 只今 百補丸 一劑를 服用하여 두시면 여름철의 心身疲勞、食慾不振、虛弱수척、其他모든一般虛弱症勢를豫防하고元氣百倍씩씩한몸으로여름을지내고가을을마즐수잇습니다

氣血不足 陽氣不足 消化不良 胃腸衰弱 食慾不振 肺弱腎虛 元氣不足 精力衰弱 神經衰弱 疲勞倦怠 貧血症 病後衰弱 强筋借力

北海道博覽會 名古屋博覽會 에서도販賣中에잇습니다

藥價 一劑 特價拾圓 一重 用 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百補丸

京城堅志町五〇〇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京城五番 電話光化門(二)三三〇番

産業

移入新記錄原因
織物工業發展에따른繰綿과 鐵機械類等의建設材移入增
六月中의移入貿易

移出減에反하야 移入記錄에잇서서 七千萬圓臺라는 新記錄을지은 六月中의 朝鮮의對日本內地貿易에 重要品價를보면

▲移出은 鮮乾鰮魚가 百三萬四千圓으로 前年同期보다 五十六萬九千圓增 牛皮가 卅八萬五千圓으로 廿二萬六千圓增 硬化油가 六十四萬二千圓으로 卅四萬三千圓增 生絲가 百五十五萬一千圓으로 六十一萬六千圓增、石炭이 五十六萬三千圓으로 十六萬五千圓增 鐵이 百八十一萬五千圓으로 五十四萬圓增 含金銀粗銅이 百九十九萬三千圓으로 六萬二千圓增 含金銀粗鉛이 七十八萬四千圓으로 五十萬八千圓增 等인데 大部分이 軍需關係의原料品이고 鐵類세멘트、金鑛、木材、洋紙等은 모다減退하엿다

▲移入은 砂糖이 六十四萬九千圓으로 十萬四千圓增 燈油五十萬圓으로 十九萬七千圓增、綿絲가 四百五十九萬圓으로 二百七十五萬四千圓增 綿織物二百四十五萬九千圓으로 十五萬九千圓增 麻織物이 三十三萬七千圓으로 十五萬三千圓增 人造絹織物이 百八十九萬四千圓으로 六萬七千圓增 洋紙가 百五十一萬二千圓으로 五十五萬六千圓增 石炭이 百十二萬三千圓으로 二十二萬八千圓增 陶磁器가 八十七萬九千圓으로 十二萬五千圓增 鐵이 六百八十三萬一千圓으로 二百二十九萬七千圓增、機械類가 五百三十五萬五千圓으로 百八十三萬五千圓增、生고무가 五十七萬三千圓으로 二十八萬六千圓增、肥料가 一百三十六萬六千圓으로 百九十萬圓增等인데 移入은 織物工業의發展에따른繰綿、鐵類세멘트 機械類等의建設材等 主된것이物價騰貴로因하야 增額된것도만타

淸津貿易躍進
今年一億圓突破?
上半期의總額四千六百萬圓

【淸津】淸津稅關支署의 調査에依하면 淸津港上半期貿易總額은 四千五百九十萬六千八百七十圓으로 昨年同期의 三千八百七十萬五千五百七十四圓에 比較하면 實로 七百八十三萬一千二百九十六圓의 增加를示現하고잇서서 이趨勢로나아가 本格的貿易『씨-즌』인下半期를 지나면 待望의 一億圓突破는 無難할것으로 보여 大淸津港의 躍進相이 如實히나타나고잇다 六月中의 淸津港貿易額은 總額五百四十八萬二千三百九十三圓으로 昨年同期에 比하면 十三萬三千百四十九圓의 增加를보엿는데 主要貿易別은

鐵類 紙類 木材(輸出)
粟 大豆(輸入)
大豆 硬化油 肥料(移出)
機械類 鐵類(移入)

等으로輸移出入別로보면如左하다

	今年六月	前年六月
輸出	[illegible]圓	[illegible]圓
輸入	[illegible]	[illegible]
移出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日鐵增産計畫 豫定額을追加

【東京電話同盟】日鐵의增産計畫에 要하는 建設資金은 輸西一億圓、廣梁一億圓、第三次、第四次 合計二億圓으로 算定되고잇는데 그後의 一般物價의昻騰과 諸建設材料의外在價格의騰貴等에 依하야 前記二億圓으로도 建設이不能하게되어 日鐵에서는 追加豫算으로서 第三次、第四次 各其 一千五百萬圓式을增加하야 第三次、第四次의建設資金 合計二億五千萬圓으로하게되엇다 右建設資金은 約一億圓에達하는 日鐵社債金으로 充當하고 그後 半期마다 積立金에依하야 補定하여갈豫定인데 右積立金으로 不足되는境遇는 昨年末의 總督에서 一億圓限度로 社債發行하기를 決定하엿슴으로 市場의情勢如何에 따라서는 適宜 社債를 發行한다고 한다 그리고 建設에要할 諸增資材는 되도록國産品을使用하리라한다

六月末南浦在庫米

【鎭南浦】鎭南浦米穀倉庫六月三十日現在 在米庫는 아래와갓다는바 昨年同月에比하야 正租는增加 玄米 白米는減少되어 合計五萬二千三百五十四石四斗三升이라고한다

▲正租 今年 七四七九四石四三 昨年 一〇五一八、五石
▲玄米 今年 五八七九六石八 昨年 一三九六二〇石八
▲白米 昨年 二二九二石 今年 一〇二七〇石

舍人特産栗
大豊穫을豫想

【舍人】平南順川郡舍人場附近의特産인밤(栗)은 그價格이廉價로서 일홈이 놉거니와 當局에서도 近年에는 留意하여 獎植獎勵하는中으로 品質改良、生産增加에 努力하고잇는바 現在에도 每年移出量三千餘石에 達하고잇서 當節이되면舍人市는 그야말로 밤장(栗市)으로서活況을보인다는데 方今 開花期에 들어간松嶺、安國一帶의 山들은 실로 밤꼿으로 아름답게 彩色되엇는데 今年은 特別히 開花가 良好하야 例年에 보기드믄 大豊穫을 豫想하고잇다고한다

세멘트飢饉深刻
操短緩和를再要請
總督府에서도어느程度承認?

【平壤】朝鮮의『세멘트』操短은 海州『세멘트』에서 六月中旬부터 操業할 豫定下에서 六七八個月間 三割六分의 操短을決定햇스나 海州朝鮮『세멘트』에서는六月下旬에 操業에는 着手햇스되 製品의 市場販賣는 七月下旬頃일것으로 結局이會社의 一個月製造高 二萬餘噸은 供給不足에直面되여 自然히朝鮮『세멘트』界全體에 大不足을 보게되엿고 反面에 需要는 製造生産의 制限으로 減少되엇슴에 不拘하고 도리혀 激增을보고잇는만큼『세멘트』饑饉은太甚한 傾向이 濃厚하다 이때문에 朝鮮小野田에서는 總督府에 操業短縮에對한緩和를 要求하야總督府에서는 聯合會의 意見을드러 어느程度의緩和를 承認할것으로보인다 緩和率은 朝鮮『세멘트』現在 一個月의 製造高二萬餘噸을 基本으로하야 朝鮮小野田의 生産力 七萬五千噸을 考慮한다면 一個月에이것을 補充하려면 三割二個月에 補充한다면 一割五分의 緩和를 하기로될터인데 需要의狀況은 相當히 急迫해잇스므로 朝鮮小野田 勝湖里工場에서는 石林社員을 다시 總督府에 派遣하야 緩和의要請을하기로되엇다

慶南北道의 移秧은順調

米穀生産高와 現在高調査事務視察을爲하야 慶南北에出張中이든 美代總督府米穀課技師는 七日歸任하얏는데 如左히말한다

兩道 모두 移秧은 九分九厘까지 終了하야 자못 順調로 移秧을 完了하얏다 水稻代作試驗은 各道모두 實施以來三年을 迎하야 熱心으로하고잇는데 慶南에서는 昨年大厥가 가장 良好한 成績을 擧하고잇다 麥도 比較的조흔듯하나 二毛作은 아직 明瞭치안타 調査事務는 生産高나 現在高를 一層 徹底히할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現在의 情況으로보면 極히 事務的으로 調査에對한 明確한 認識을갓지못한듯하다

咸北明川郡에서 夏秋蠶種에成功
六月中旬에配付可能

【咸南】氣候關係로 從來 咸北道內의 夏秋蠶은 最南端인 城津郡에서도 六月末頃에 掃立하야 七月末이아니고는 原蠶種을 製造하지 못하든것이 意外에도明川面 上古面 木津洞의 實驗으로 該事實이 轉覆되고 六月中旬에는 原蠶種이 完成될수잇다는것이 나타나 蠶業界에 新奇한『뉴-스』를 提供하고잇다 木津洞은 明川郡의 海岸地帶에잇는 百餘戶의 寒村인데 朝鮮地方과 恰似한 氣候를 가지고잇서 將來 蠶業界에는 實로 貴重한 存在일것이라는바이로서 咸北의 蠶業은 南朝鮮에 遜色업는 發展을 보게될것으로 그前途가 크게 囑望되고잇다

大會社의出現으로
元山에燒酒販賣戰

【元山】百萬圓의 北朝鮮燒酒株式會社의 出現과同時에 이會社의 一手販賣權을 獲得하려고元山에잇는 燒酒都賣商들은 兩派로 分立되어 서로 暗暗裡에活動을 開始하고잇다함은 旣報바어니와 그兩派는 서로協議한後 幾日前에 市內某處에서 德友商店 進榮商店 金수알 朴興緖 平和商店 三報商店 德興商會等 七個仲商이 會合하야 協議한結果 元山燒酒仲商組合을設立하얏다고한다。그리하야 그組合에서는 前記燒酒會社의 一手販賣權을 獲得하는 一方 다른釀造場의 燒酒는 一齊히 取扱치안키로 하엿다고한다 이로말미아마 元山의 燒酒販賣는 前記仲商組合을 通한 北朝鮮燒酒會社와 東洋釀酒所等과의 激烈한 販賣戰이 展開되여 從來 一度에 十六錢하든것을 十五錢 乃至 十四錢五厘로 大擧引下하엿다 이리하야 元山에는 北朝鮮燒酒會社와 다른釀造場과의 競爭이날로 激化되여 서로구피지안코 最低限까지 引下할모양인데 이釀造業者가 서로對立하는동안은 消費大衆이 有利할것이고그反面에 群小釀造場의 敗北의結果는 다시 消費者에 不利하게될것이라한다

◆産◆業◆短◆信◆

▲新義州 東拓直系資本金五百萬圓의 朝鮮無水酒精株式會社 囑託技師 渡邊政德氏는 四日來新 新義州工場의建築事務를開始하게되엇다한다

▲忠州 淸州郡에서는 郡內吏員指導部落擔任 邑面職員五十三名을召集하야 지난五日 公會堂에서 農村振興에對한 協議를開催하얏다

▲忠州 忠州殖産契에서는지난七月四日 午前九時 第六期定期總會가잇섯다한다

咸南道明卵製造 許可制를遂實施 (下)

第六條 左의各項의 一에該當하는者는 道知事가 明太卵製造業의 停止又는 製造工場의 指定又는 許可를 取消할수잇슴
一、朝鮮漁業組合 又는 이에基한 命令에 違反하야 採捕한 것을 原料로하야 製造를하며 又는 하려고할時
二、本令 又는 本令에 依하는 處分或은 制限條件에違反할時
三、製品에 不正手段을 施한時
四、公益上 必要잇다고 認할時

第七條 第二條第一項의 指定又는 許可를 바든者 正當한事由업시 그指定 又는許可日부터 一年以內에 事業을 開始치안코 又는 繼續하야 二年以上 事業을 休止한때 道知事는 其製造工場의 指定又는 許可를 取消할을得함
前項의 期限中에는 前條의規定에 依하야 停止되엇든 期間은 이를 算入치안홈

第八條 第二條第一項의 指定又는 許可를 바든者 第一號 乃至第四號의事項을 變更하려할時 그事由를 具하야 道知事의 許可를 바들것

第九條 第二條第一項의 指定又는 許可를 바든者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할時는 遲滯업시 道知事에게 屆出할것
但 第六號의 屆出은 相續人으로부터할것
一、第二條第一項第一號事項을變更할時
二、一定期間事業을 休止하려고할時
三、休止한事業을 再開할時
四、[illegible]
五、[illegible] 又는 一部가 [illegible]
六、許可를바든者 死亡한時

第十條 道知事가 必要잇다고認할時는 許可를 바든者에對하야事業에關한報告書 又는 其他物件의提出을 命하며 又는報告를하게할수잇슴

第十一條 道知事가必要잇다고認할時는 製造工場에 臨檢하야 製品、原料、製造材料、用水、製造方法、製造工場構造設備器具、機械、或은 帳簿書類를 檢査하며 又는 取締上 必要한命令을 發할수잇슴

第十二條 道知事가必要잇다고認할時는 製造工場에對하야 明太魚卵製造에 必要한 設備를 命할수잇슴

第十三條 明太魚卵製造取締員은 道郡職員中으로부터 道知事가 이를 命함
取締員이 必要잇다고 認할時는 明太魚卵製造貯藏荷造의現場又는 運搬의途上에對하야 檢査를하며 本令違反의 疑心잇다고 認할時는 現品의 保管又는 運搬의 停止或은 積換을 命할수잇슴 取締員이 그職務를 行할時는 別記樣式의 證票를攜帶할것

第十四條 第一條의 規定에違反한者는 百圓以下의 罰金에處함

第十五條 左記各項의 一에該當한者는 五十圓以下의 罰金又는 科料에處함
一、第四條의 規定에依한命令 又는 第六條의 規定에違反할時
二、第八條規定에違反할時
三、第十二條의 命令에 違反할時
四、正當한事由업시 第十三條의規定에依한檢査를拒否又는忌避한時
五、正當한事由업시 第十一條의 命令에違反할時

第十六條 第九條의規定에 違反할時又는 第十條規定에 依한 物件의 提出을 拒否又는 報告를 [illegible]한時

第十七條 明太卵製造業者는 그代理人、戶主、家族、同居者、雇人、그他從業者가 그業務에關하야 本令規定에 違反할時는 自己가 指揮치아니햇다는것으로써 그處罰을 免할수업슴
明太卵製造業者가 未成年者 禁治産者、法人인時에는 이에 適用할法則을 이를 法定代理人、代表者에게適用함 但、그業務에關하야 成年者와 同一한 能力을有하는 未成年者에對하야서는 此限에不在함

附則 本令은發布日부터施行함

下期商品界展望 (五)

燃料
軍需景氣進行
石炭、石油低落難望

石炭 石炭時勢는 繼續昻騰步調를 示하고잇다 最近 그騰勢는 幾分緩漫하야젓스나 그中에 相當히 騰貴되고잇는것도잇다 이제 今年六月時勢와 昨年同期의 時勢를比較하야보면 모다 顯著한 昻騰을 示하고잇다 九州一等粉炭과 北海道粉炭의二割一分八厘를 筆頭로 北海道炭의一割六分二厘 常磐粉炭의 一割六分 撫順炭의 九分九厘 常磐炭의九分一厘의 各其騰貴이다 이제 그時勢의 比較를보면

	今年六月 圓	前年六月 圓	騰貴率 %
九州一等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粉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海道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粉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常磐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粉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撫順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으로 이와가튼 石炭時勢의 主要한 昻騰의 原因은 첫재 運炭諸費用의 昻騰이며 둘재 採炭費의 增加、諸設備의 增設改善費用의 昻騰等이라한다

그러나 現在 石炭時勢의 騰勢는 昭和石炭의 炭價調節에 依하야 幾分 緩和되리라고하는데 大勢上으로보면 그다지 低落을 바랄만한 材料가 적고 도리혀 軍需景氣에 依한 石炭의 需要增加傾向으로 先高觀이 有力하다 더욱이 需給關係에잇서서 石炭의 大饑饉은 不可避의 狀態이라한다 滿洲事變以來 連續的需要增加 即十一年度의 石炭需要高는 四千四百六十萬噸으로七年度의 二千九百十二萬噸에 比하야 一千五百萬噸의 增加이다 今年以後는 一層需要增加가 豫想되어 十二年度는 四千九百十萬噸 十三年度는 五千四百萬噸 五年後 十七年度에는 七千九百萬噸의 消費豫想이라함으로 現在 日本內地의 埋藏量이 百六十七億噸、外地埋藏量이 五十億噸으로 豫想되기는하나 實際增産問題에잇서서는 幾多의 難關이잇는만큼 大勢上으로 石炭價는 現在以上으로 低弛되리라고는 期待키難하다고한다

石油 石油時勢는 軍需景氣를 中心으로하는 諸工業의 活況에伴하야 强調를보이고 잇다 今年六月時勢를 前年同期에 比較하야보면 揮發油一割八分、燈油三割四分五厘、輕油三割四分、機械油三割六分五厘、重油二割一分、原油二割四分三厘의 昻騰으로 이를 表示하면 如左하다

	圓	圓	%
揮發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燈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輕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機械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重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原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最近은 時勢가 거이保合이나 氣配는 幾分 低弛의 傾向에잇다 이제諸油에對하야 最近의 情勢를보면 揮發油는 實需가 幾分減少되고잇다 그는 最近 新自動車가 從來보다 一割乃至三割의 燃料節約可能 日本內地方面大都市의 自動車駐車場의 增加에 基因하는것이다 機械油는 多少底入時勢를 示하야 投物이 依然 頻發되고잇다 輕油는 業者에따라서는 出廻薄을 唱하는者도잇스나 全般的으로는 依然 彷徨狀態이다。燈油는 所持가 意外로 多量인우에 各社의出荷良好와 需要薄으로 彷徨狀態이다 石油時勢는 目下 季節關係로 幾分軟調를 示하고잇스나 大勢的으로는 依然 上昇傾向에잇슴은 事實이다 그리고 石油가産業界의 原動力이되는만큼 基本的으로도 優秀한 地位에잇는터이다

寫眞은 油田의로-타리鑿井機

日用商品市況

▲綿布綿絲 米棉二〇錢高 印棉五〇錢 高의材料로 堅調이나 三品綿絲는 嫌氣投賣 材料逆行低落을 示하야 市中現物界는 阪地不勢로 各品共히弱含이다

▲蔬菜 一般 蔬菜類는 目下 朝鮮産의 出盛期임으로 時勢는 軟化되는것이 常例이나 其間의 旱魃로 因하야 生育에 적지안흔 支障이잇서서 比較的高價가 持續되는 狀態이나 近日에 降雨가잇슴만큼 今後 低弛되리라고한다

▲果實 赤果 梨等은 目下端境期임으로 거의 品切狀態이며 目下今年産桃의 初出廻를보아 今後漸次로 新果實의 出廻를보게될것이다

▲鷄卵 朝鮮産 在來卵의大量入荷로 日本內地産의 入荷는 漸減의傾向에잇는바 目下 産卵率의 最低期임으로 時勢는保合持續되리라고한다

◇家畜飼料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繭綿乾白	十貫	[illegible]
成鷄用練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百斤	[illegible]
中雛用	一貫	[illegible]
鱗虫用粉	百斤	[illegible]
玉膵黍碎	同	[illegible]
同 中割	九十斤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碎	同	[illegible]
同	同	[illegible]
魚粉×粕	九十斤	[illegible]
桃	八五斤	[illegible]
糲穀	百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四尺幅 二寸目	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	同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五分目	同	[illegible]

◇毛皮類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川魚類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蜆貝	一升	[illegible]

◇家畜類

鷄卵	百個	[illegible]
鷄	一貫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百匁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鵞卵	同	[illegible]
綿羊	一頭	[illegible]

◇其他副業品

參拝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蕃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査)

◇菜蔬類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白	同	[illegible]
人參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蘿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日本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본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四貫	[illegible]
玉葱	十二貫	[illegible]
靑葱	一貫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果實類

林檎(國光)	四貫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同 紅玉	同	[illegible]
梨(晩三吉)	[illegible]	[illegible]
同(今村秋)	同	[illegible]
同(早生赤)	同	[illegible]
夏蜜柑	十貫	[illegible]
바나나	同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一斗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스포-츠

第四回全朝鮮中等陸上
參加申請은十日限

中等學校陸上競技界의 最高權을決할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四回 全朝鮮中等學校陸上對校選手權大會는 來八月一日과 二日의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校는 十日까지 京城府本町三中井運動具部內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으로 申請하기를바라며 同大會의 規定은 다음과갓다

一、本競技會는 各參加校를 그選手의 本年度의 普通年齡에依하야 左記와가티 二部로나노아行함
▲一部 十八歲以上 (大正九年十二月三十一日以前出生者)
▲二部 十七歲以下 (同十年一月一日以降出生者)
但 繼走競技에 限하야 本項을 適用치아니함
一、競技種目 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五千米 △高障碍 低障碍 四百米繼走 千六百米繼走 砲丸投射(五、四四二키로)投圓盤 投槍△鐵鎚(五、四四二키로) 走高跳 走巾跳 三段跳 △棒高跳
但二部에서는 △印(五千米 高障碍 擲鐵槌 棒高跳)의 四種目을除함
一、出場制限 每校一種目에 三名以下但 繼走는 六名以下
一人出場種目數는無制限
一、優勝 一部、二部에서二種目以上에具하야 得點하고 一部와 二部의 合計點 最大한學校로서 優勝校로함 同點인境遇에는選手權의 多少에依함
優勝校에는 日本學生陸上競技聯合會寄贈優勝旗를授與하고 次回까지 이를保管케함
一、採點法 六位까지六、五、四、三、二、一點
一、競技規則 日本學生陸上競技聯合採用의 競技規則에 依據함
一、參加資格 朝鮮에서의 官公立과밋 朝鮮總督府認可의 私立男子中等學校에 限함
一、申請 本聯盟規定의 用紙에依할事 記入은 明確히할事 但番號欄記入은 不要
不正記入잇는境遇는 時期의 如何를 不問하고 當該學校의 參加를 取消하고 그申請書에는 必히部長의 署名捺印을 要함
一、參加料 一名에 對하야 五十錢으로함 但申請과同時에 納付할事

中等籠球大會
平壤에서開催

籠協朝鮮文部主催의 全朝鮮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는 八月三日과 四日의兩日間 平壤師範코-트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中部代表로는 高普部에 第一高普 第二高普 養正高普 實業部에 大東商業 東星商業 中學部에 龍山中學 元山中學 師範部에는京師가 出場할터이라한다

伊아마拳鬪勝利

米國對伊太利의國際아마튜어拳鬪戰은六月九日(?)「양키-스타디움」에서 十一試合을行한바 六對五로 伊太利軍이 겨우이겻다

籠球講習會
八月二日로延期

朝鮮籠球協會主催의 第二回夏期籠球講習會는 七月二十二日부터 元山樓氏女子高普코-트에서 開催할豫定이든바 主催側의 事情에依하야 期日을 延期케되여 八月二日부터 七日까지 同場所에서 열기로되엿다한다

女子籠球選手權

籠協朝鮮文部主催의 全朝鮮女子籠球選手權大會는 七月二十九日과 三十日의 兩日間 京城運動場코-트(未確定)에서 擧行할豫定이라한다

올림픽東京大會
主競技場은
不遠에着工豫定

【東京電話同盟】遲延되엿든 明治神宮外苑競技場의 大會會場問題도 七日外苑評議委員會의結果 條件附로 이를改造하기로 承認되여 마침내 主競技場評議委員會는 곳外苑競技場改造案申請書를作成하야 新東京府知事의 承認을어더 內務省社會局에 同附하야 正式決定의 手續을하기로되엿다 內務省에서는 同附를기다려 곳組織委員會에 改造案에 對하야 承認된條件을 正式通告할모양인데 一方改造案에對하야는 七日에도 外苑評議委員會에 提出한 內務省案外에 東京市와밋外苑競技場改造案 小林政一博士作成의 兩案等이 再檢討를行하야 具體化를 急하기로 되얏다 「스로-모-」의許諾을엇은 主競技場問題도 急速히決定되기로 되얏다 더욱이 七日의評議委員會에提出된內務省原案에依하면「스탠드」總延坪七千五百坪 그收容力七萬五千人으로부터 九萬人까지의擴定이며改造條件으로된環狀線西方買收의件은 現競技場에沿한空地外에 또溝渠를 건너선 現住宅街一帶에미칠것으로 從來의案에對하야 約二千坪이나 擴大될모양이다

▲延專蹴球部에서는 가을씨-즌의活躍을 目標로 八月二十日부터十日間 同校에서 合宿練習을行할터이라하며 庭球部와 野球部의 地方遠征은 事情에依하야 中止하엿다하며 武道部의 冒暑練習이잇슬터이라한다

▲普專庭球部에서는 七月十六日頃에京城을떠나 約十五日間豫定으로 湖南地方에 遠征할터이라는데 轉戰地는水原、大田裡里、群山、全州、順天、寶城光州、羅州、木浦等이라 하며 籠球部에서는 滿洲遠征을 計畫中이라하며 럭비-部의 合宿練習도 行할豫定이라한다 그리고 柔道部에서는 對延專戰의 連勝을 目標로 冒暑練習을 斷行할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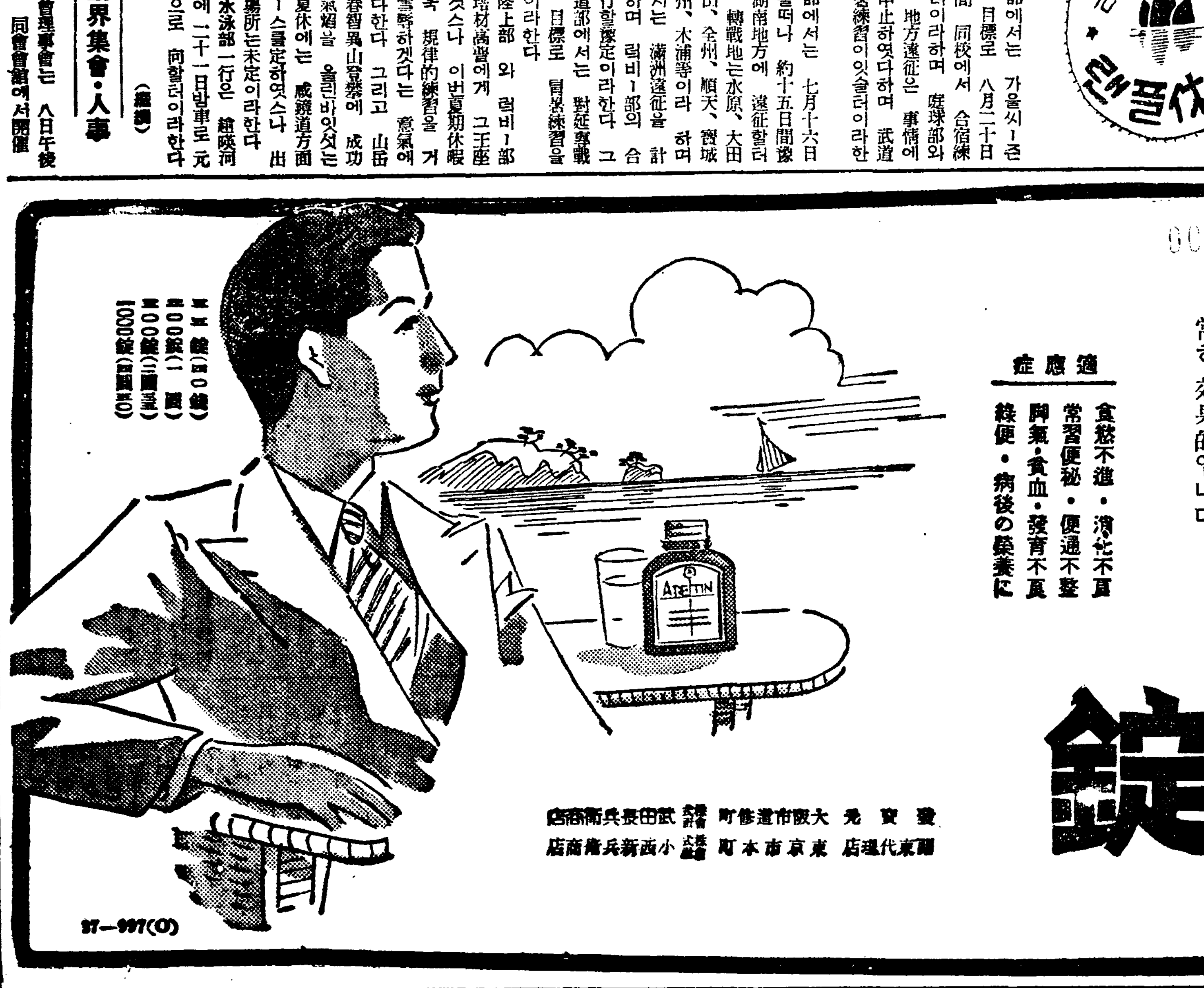
▲養正高普陸上部 와 럭비-部에서는 培材高普에게 그王座를 빼앗겻스나 이번夏期休暇中에 더욱 規律的練習을 거듭하야 雪辱하겟다는 意氣에불타고잇다한다 그리고 山岳部는 今春智異山登攀에 成功하야 快氣焰을 올리고잇서는데 이번夏休에는 咸鏡道方面으로 코-스를定하엿스나 出發期와 場所는未定이라한다

▲普成高普水泳部一行은 趙峽河氏引率下에 二十一日밤車로 元山松濤園으로 향할터이라한다

運動界集會·人事

▲朝鮮體育會理事會는 八日午後四時부터 同會館에서開催

食慾과 消化에



自然히생기는空腹感 消化를도음는證據

아페친을먹고 第一로感覺하게되는것은 食慾이업든 사람이 갑작이空腹感이나는것입니다 이것은 아페친錠이含有한 비타민B가 胃腸의機能을 놉히고 消化液의分泌를더하야 消 를도음는까닭입니다

同時에便通이整調돼

食慾이增進되는一方 便通이順調롭게되는것도 또한 顯著한特色으로 胃腸의運動이整調되고 消化吸收가 조아진結果입니다 消化器管의 調節이잘되는것은 身體全般의調節이조아지는前提라고도 할수잇는것임으로………

炎暑期를當하야 아페친錠을服用하고 胃腸과體力의强化를 圖謀함은 夏期를健康히지나는대 非常히 效果的입니다

適應症
食慾不進・消化不良
常習便秘・便通不整
脚氣・貧血・發育不良
[illegible]・病後の榮養に

五〇錠(四〇錢) 二〇〇錠(一圓) 五〇〇錠(二圓[illegible]) 一〇〇〇錠([illegible])

アペチン錠
아 페 친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小西新兵衛商店

武田製藥

27—997(O)

地方論壇

穀組記念館과 穀物協會의盛擧

文化가向上되고 生活이複雜함을따라 諸般의集會가 잇게됨은 우리 人類社會에서만 볼수잇는 現象이다 新興都市萊野에잇서서 萬般의 文化施設이 進行되고잇는今日에 어찌會合할만한 一個의場所가 업슴이 恥辱이 아니라 施設上 意見交換의 必要가 잇는境遇라도 여간해서는 會合을 열지못하고 萬不得已한 때에만 官公署의 會議室이나 講堂等을 빌지니 이亦手續이 困難할뿐 아니라 또얼마나 窮窘하얏나그 때문에 個人私宅을 빌지니 狹窄의嫌이잇고 自由롭고 허술한 會唯一한集會場所는 料亭밧게업다 料亭에서 開會케되면 此所謂 貴物生心이라고 開會도 채되기前에 乾杯와은길이라 너하잔 나하잔하고 도하잔하니 못처럼 모엿든會合의 眞正精神은 酒盃에다나라가고 남은것은 酩酊亂醉에 그러진 酒氣뿐이다 그러고보니 自然會合에 出席을躊躇케되고도 는必要할때마다 會合지못하도그 열못하는事情이다 이얼마나 慨嘆할바이라 이러케 옹이자라고꼿이피려는 萊野를 爲하야 相當와理想의 一端을 發表할機會를 주지안하니 文化施設途中에잇서서얼마나한支障이며 損失이냐그러든中 우리萊野市의 穀物商人으로 組成된穀物組合이 昭和二年三月에 創立되여 十年間貯蓄된基金이 數千圓에 達하엿다 그러나 利潤分配의 目的이 아닌 이巨金은 私財가 아니라는 觀念下에서 또는 前記와 如히 料亭集會로한 餘弊로 濫用되여 二十餘名이 一次會合에 最高七十圓까지 支出된적도 잇다한다 이얼마나 浪費하고도 實한돈이 濫用의길을밟고 日復日減少되엿는가 그러다가 時代의 進運과 地方의 發展을 따라 去年十二月에 該組合은 解散시기고 새로히 穀物協會라는 新機關을 組織함에 際하야 該組合의 基金 一千五百圓에 對한 處理方法이 區區不一하다가 結局에는 時代的 要求와 幹部諸氏의 自進贊成으로 萊野市北側에 五百餘坪의 基地를 買收하고 二千圓의 工事費로 三十二坪의 洋式會館을 新築하야 市民一般의 利用에 供하기로 一致決議하고 海州建築社에 請負까지 맷기여 今七月中으로 竣功될豫定이라한다 會館의 名稱은 公會堂이라하야 圓滿局에 맛기는 이보다 利用의便利와 將來維持에잇서서도 同協會에서 責任을 負키로하야 穀物組合記念館이라 名稱은하나 利用方途에 드러서는 單純한 公會堂과 秋毫도 差가 업겟다하니 이얼마나 意義잇고 보람잇는 記念事業이냐 바라노니 協會會員諸氏는 조곰이라도 私的의 偏心을 가지지 말고 徹頭徹尾 公益道德의 아름다운 精神下에 多少煩雜과 若干汚損이 잇슬지라도 虛心諒解하고 六千市民이 隨時隨意로 利用케하야 集會不便의 弊를 一掃하는 同時 文化施設上 敎育 藝術 宗敎 各方面에 亘하야 多大한 도움이 되기를 밋고 바라며 거듭 協會員諸氏의 意味잇는 이 事業을 衷心으로 讚賀不已하는 바이다

萊野支局 一記者

酒類統制實現코저 業者에"爆彈宣言"

釀造權買渡又는出資를要求

無處不參의三井財閥

【清津】 방대한 그자본과 광범한사업망으로 또는 아모리 적은 구석구석에깔녀진 리권이라도 빼노치안키로 유명한 삼정재벌(三井財閥)이 정어리(鰮)에손을내밀든니 이번은다시 함북의 삼대산업의 하나인 목재업(木材業)에 손을빼치고 또 양주업(釀酒業)을독점하려는 공작을 시작하야업게의 전도에 크다란 불안을던저 업자들은 엇지하여야조흘줄모르고잇는 상태이다

얼마전에 삼정재벌측에서는 줄장원을 보내여 함북도내의 양주업자를 차저 다니며 "소주(燒酎)와 탁주(濁酒)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겟스니 그권리를팔든지 그에해당하는 출자의형식을 취하야 출자주가 되으로써 통제에 협력함이 야하…"라는 폭탄선언(爆彈宣言)을나리고 단녀감으로 이말에 놀라깨인 업자들은 자못당황하야 엇절줄을 모르고 갑(甲)은 을(乙)을 을은 병(丙)을 차저다니며 그대책수립에 급급하얏다한다

그후 삼정측에서는계속하야여러가지 조건과 방법으로 업게를 뒤흔들고 잇다는바 이로서 미약한 업자들은 혹은 빨리추종할것이라주장하고 혹은불리한 조건에는 가담할수업다는등 전혀 통일된 보조를 취하지못하고 잇는모양이다 하여튼 조건여하로 매신할것가튼동기가 농후하다는데 그조건은 아직명백히 나타나지안허 장래를 점치기 어려우나 통제의 미명에양조업계의 장래가여하히될지 그추이에대한 일반의 관심은 자못커가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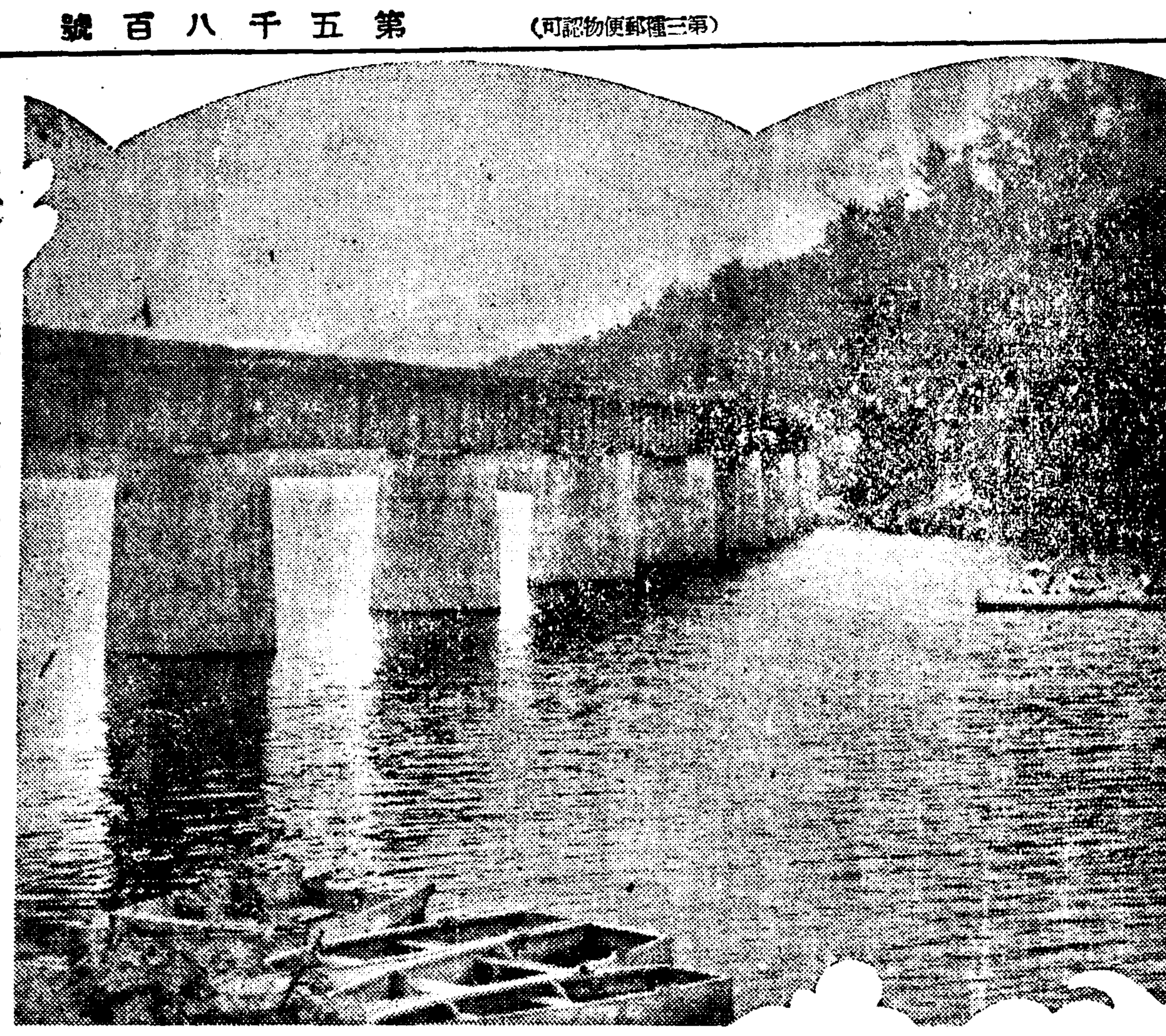
利權化한『製材權』續續買收獨占!

營林署의統制를奇貨로

【清津】 함북의 삼대산업(三大產業)으로서 목재업(木材業)이 정어리어업(鰮漁業)석탄광업(石炭鑛業)과 아울러 그역사로 또그 규모로보아 촉망되야온지 오랫스나 최근의 주위사정은 반드시 유리한것이 아니라는바 그중제일 두통꺼리가 통제풍(統制風)의 풍비로 수천업자의 전도가 자못우려되고 잇다는사실이다 즉 작년이래로 영림서(營林署)측의 정책이 일변하얏다는데 그일례로 성진(城津)지방을 보면 영림당국에서 제재업자를 어느표준아래 인정하야노코 그인원외에는 새로운업자를 용인치안코 그인원에한하야 한사람압헤 얼마라는 산판을 분배하게 되얏슴으로 어느틈에 이것도일종의리권(利權)으로화하고 마랏다한다

이것이업게를 보호발전시킨다는점에서 취했스리라고는 보이나 그결과는 그와상부치못한바잇다 그리권이 평가(評價)되야매매행위를 할수잇게되얏고 이어서례의 삼정재벌(三井財閥)이 울즈거벌서 면면업자에게서 그리권을 매점(買店)하기에 이르럿다한다

이경향은 불원에 도내를들너싸고 일대풍파를 이르키지나안흘까보인다는데 이는 오직시일문제라고 관찰하는편도잇서 제재업의장래와 수천업자의 전도가매우주목된다고한다



◇寫眞……綾州映碧江水泳場……湖南名所

龜塘簡易學校 早速認可陳情

【伊川】 강원도이천군방장면귀당리(伊川郡方丈面龜塘里)는 려사적유명한 갈산오천이 잇는곳으로서 금년봄 이천군각학교평의회에서 귀당간이학교설치문제에 대하야 만장일치로 가결한이후 군당국에서도 방면간이학교설치인가를 신청중이며 교사와기타 모든준비를 다하고잇든오날까지 인가가 되지아니하므로 지난삼일동리면민대표김창섭(金昌燮)김형기(金亨基)씨외다서엿이 이천군수를방문하고 속히인가되도록 진정하엿다는바 지청의결과는 롭하는바비 간이학교의 인가를 일반주민들은 대망하다고한다

湖南名所映碧江 避暑客의修養所

十一日부터水泳開場

(綾州支局後援)

【綾州】 호남제일강산이라고 칭하는 산명수려(山明水麗)한 룽주영벽강과 명승고적으로 유명한 영벽정(映碧亭)은 룽주팔경의 하나로 영벽상춘(映碧賞春)과 주산초적(珠山樵笛)의 문자 그대로 풍광명미(風光明媚)하고 피서객의쾌상(快爽)을느겨오든곳으로 래년부터성대한 수영장을 개설하여왓스나 불편의감이업지안헛스므로 그것을 대단히유감으로역이여 룽주번영회(綾州繁榮會)주최와 본보룽주지국(綾州支局)후원하에 금월십일일부터 수영장(水泳場)을 개설하기로한바 금년에한하여서는 각별한장치와 설비를하여 일반유객에게 편의를도모하며 철도국에서도 활인이잇스리라고한다

買收交涉이決裂 二萬餘坪裁決申請

永興"드렛지"會社에서

【咸興】 지난 삼월일일부로 토지수용령적용(土地收用令適用)을 전제로한 사업인정(事業認定)신청을한 영흥군 인흥면(永興郡仁興面)도선드렛지광업회사(鑛業會社)의광업용지(鑛業用地)매수에 대하야서는 그후 기업인가지령(起業認可指令)을 밧고서 재차 매수교섭에 나아가는바 지주들의 태도는 여전강경하야 타협을 엇지못하엿스므로 동회사에서는 칠월일일부로 다시 도지사의 재결(裁決)신청을하야 왓다 이번 관계된 지주는 림찬구(林贊九)등 일곱명이며 그 관계토지는 이만칠천오백구십칠평이나된다는데 회사(會社)에서는 평당평균사십전내지 오십전으로 매수하려고하는데 지주(地主)측에서는 이것이시가(時價)로도근 일원가량되는 토지일뿐아니라이것은 조선전래의 농경지(農耕地)로 이것을 일케되는날 물심량방에 적지안흔 고통을밧게된다는것인데 장차그진전이 주목된다고한다

現道理洞合資會社 財產所有權問題

八十餘年前부터洞財라하야 洞民大會開催對策講究

【統營】 통영도천리소재의 도리동합자회사(道理洞合資會社)조직내용에잇서서 사원이 현재이십삼인에 불과하는바 온동민은이는부당한 조직이다 사원은 온동민이 다사원이라는 주장으로 도천리 유지수인이 발기하야지난칠일날 경오에 도천리매축지대광장에서 동민대회를개최하고 림시집행위원장에 박성우(朴性牛)씨와림시서기에최남교(崔南敎)씨가피선되여 다음과가튼 의와 교섭위원을 선정하엿다고한다

道泉里洞民大會

討議

一、道理洞合名會社 創設된原因의說明
二、合名會社財産收支 決算承認의件
三、土地賣渡 處分事由 眞詳報告의件
四、整理委員選定의件
五、會社規則變更의件

이상인데 부의장 김장엽(金章燁)씨의 도리동합명회사 조직원인의보고가 잇고나서 합명회사의 법적사원인이십삼인중 일인도 그동민대회에 불참석한 관계로 문제의 합명회사는 이십삼인에대한 개인적조직체라는것 동민일동은 합명회사는 약칠십육년전부터 동재로써 지금까지 나려왓스니 합명회사의사원은 현도천리거주의 주민이면 모두 사원될자격이잇다는 두구별의조건에 도천리 동민대회에서는 조합급 정리위원으로 朴性牛 張旭潢 金鼎泰 陳文永 金錫源 씨등을 선거하고 직접도리동합명회사대표사원 허윤모(許潤模)씨를 직접방문하야 흑백을가리기로하고 폐회하엿다고한다

합자회사문제로 약오천호거주민외한동리 사람끼리 말성이생기여 아프로 분쟁을 연상할만한 동민간에 권리 쟁투가 이러나게되바 이에대하야 관계자 양측의말은 다음과갓다

道理洞合名會社代表社員

合資會社代表 許潤模氏談

이문제로 동민유지층에서 우리에게 한등의진상과 교섭도업시 동민대회를 그광장에서 개최하게된것은 일반사회에미안합니다

현재 동민는 합자회사재산이 동재라고하나 동재로잇든 호역져 동계 동외계소유가동재이엿는데 그는 멧해전 움에서 조사하야 유재산으로편입하엿스며 현재합자회사는약칠십육년전 이동리유지며분이 특별히 동리사업기타 교육사업에쓰기위하야 별도로 사오원씩모집하야 그리자로써 동리사업에써오는 즉사회사업을하야 오다가 소화칠년에 재래잇는 별계(別契)를 도리동합명회사를 조직하는동시 동리농민의 노구동무입 기타 동리를위한 사회사업을하엿고 근간에는 제이공보교에 이천원을 기부하고 약천원으로써 사원에게 배당하고 지금일천이백여원이 현금으로잇는데이 아프로도 동리를위하야 또동영사회를위하야 이돈을 사회에쓰기로하고잇습니다 그런대 동민들은 온동민이 사원이대 동민모르게합자회사를 조직하야 사원끼리만 갈러먹엇다는등 현도천리거주자는 전부사원될자격이잇다는등 아리케말하나 아프로사원은 누구라도 될수잇서서 사원의결재가잇스면 누구라도될수가잇습니다 운운

副會長 金章燁氏談

도리동합자회사는 근간조직되엿스나 원래 『별계(別契)』라는것이 잇섯는데 이별계는 지금으로 약구십년전 동재사가도천리거주민의 사업을 위하야 그당시 멧사원을 동리유지에게주어 동리사업을 하게한것인데 지금 그돈으로써 리자를 놀리고 또 토지를 사서 사천오백원이라는 금액까지 달하엿는데 이도리동합자회사는 별계의 후신이며 별계는 틀림업시 동재입니다 그러니 현재 도천리 사구에 분산되여잇는 동재를 합하야 어떤 재단을 조직하야 동리사업을 하도록함이 올흘듯합니다 운운

新高山地方에 夜盜虫大猖獗

【新高山】 함남안변군신고산근처 논에는 야도충이 침입하야 벼의 입사귀를 모조리먹는다는데 죽근리(竹根里)근방에는 더욱심하야 농가에서는 근심중으로 지내는중이라한다

禮山支局主催—第二回 全朝鮮蹴球大會

來八月七、八兩日에

【禮山】 본보례산지국주최로 철각건아(鐵脚健兒)들의 체육장려를표본삼는 전조선 축구대회(全朝鮮蹴球大會)는 금년으로서첫돌을 마지하게됨에 대하야 주최자로서는 본대회가 병여시자라기를 축복하는바어니와 금년에는 례년에업든 은컵(銀盃)일좌를기증하게된바 공전의 성황을미리약속하는바이다 금년으는좀 시일을 당기여 일즉이 개막하라고하엿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오는 팔월七、八양일간 례산농교 운동장에서 웅호간의열전이전개될것을 예기하는바이니 지방선수는 만히참가하야 영예의월계관을 획득하기 바라는바이며 본대회의 규정은 추후발표하기로되엿다

寶城地方에喜雨

【寶城】 전남보성지방에는 이앙기를당하야 기후가대체로순조로웟스므로 이앙도칠팔할은 때를어기지안코되엿는데 그후약삼주일동안 비가나리지안허 건답은 이앙을못하엿스며 기왕이식해노흔것도고갈상태이든바 지난삼일밤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야 겨우이앙은끗날모양이며 고갈상태에잇든모들도 갱생케 되엿다 그럼으로 일반농민들에게는 희색이가득하다고한다

時價二千五百圓의 公設運動場提供

天宜市南昌熙氏特志

【瑞山】 충남서산군정미면천의시(瑞山郡貞美面天宜市)는 군내에서중지하는 선진지방으로 유의청년도 상당히포용되야잇는대오래전부터 체육향상기관도 업슬뿐아니라 운동장도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해오든바 당지남창상회(南昌商會)를경영하고잇는 청년사업가 남창희씨(南昌熙)(三七)가 체육을극력향상식히고자 넉넉지도못한지체에 토지삼천평을자진희사하야 군내에다시업는 조흔운동장을 만드는중이라는바 일반은씨의장시에 감격하야마지안는다고한다

禮山地方에傳染病

【禮山】 여름철이면 인간의 건강을위협하는 전염병마는 금년에도례산군에 발생하엿다 례산군례산면례산리 김삼복(金三福)(假名)의 장남 경만(慶萬)(三)은 얼마전부터 이질(赤痢)로앓다가 지난사일에 경찰에 발각되여 환자는곳 격리병사로 옴기여가고 그집안을 전부소독하엿다는데 일반가정에서는 만연하는 전염병에 관심하기바라는바이며 소관례산서에서는 시민에게경고문까지발표하야 병마의비상시에 특별주의를요한다고한다

老婆自殺企圖

【文山】 지난오일 이천군파양면지석시(伊川郡葉陽面文石市)에사는 손리국(孫利局)(假名)의어머니는 그의며누리 김리숙(金利淑)(二一)과싸우다가 분함을못니기여자살을목적하고 면도칼노 자기배를 거엇는데 상처는 대단치아니하여 다행이생명만은 관게업섯스나 며누리는 소동의기

生活難을悲觀코 壯年男子自殺

【海州】 생활난으로 인하야 목을매여자살(自殺)한 중년리발업(理髮業)자가잇다— 지난오일 오후세시쯤되여 해주읍 망석정(海州望石町)이백팔번지에서 리발영업(理髮營業)을하든 강남연(姜南衍)(四○)은 그집방에 목을매여 자살하엿는데 그원인을 드르면 리발업으로서 구차한 생활을 간신히 해오든터인데 최근에는 생활난이 더욱심하야 만흔식구가 살어갈길이 막연하야 비관하든남어지 그만 자살을 도모한것이라고한다

料金引上은不許 合同經營을勸奬

택시料金引上要求에對하야 警察部의態度決定

【釜山】 부산부내에 잇는자동차조합(自動車組合)에서는 물가등귀를 리유로 종래시내팔십전균일하던 택시료금을 일원으로인상하고자 얼마전 도경찰부에진정을 하얏스므로 일반부민들은 도당국의 태도를 주목하고잇다 함은 기보한바이거니와 그후도경찰부에서는 각방면으로 조사연구를 하던바이지음 방침을대강결정하엿스므로 미구에 정식으로 발포할터이다 그방침을듯건대 다른도시에 비교하야 결코 헐한료금이 아닐뿐아니라 시내는 대부분 포도이여서 료금인상의 필요는업는데 영업자들이 경영이곤난한것은 사실인듯하니 두개혹은 세개의 회사로 합동(合同)을하야서 경영의합리화를 도모하는것이 가장 량책이라는 견지하에근근 합동에대한 구체적지시가 잇슬터이라 하는데그 결과가주목되는다고한다

地方人事

▲横山幸生氏(前咸北道地方課長) 京畿道로榮轉人事次 本報城津支局來訪

▲森洪氏(前咸北道外事課長) 總督府事務官으로 榮轉人事次同上

彌助港의生命線인 防波堤實現을促進

期成會開催目的達成에邁進

벌서基金調達도樂觀

【南海】 남해삼동면미조항(三東面彌助港)은 풍파만잇스면 사백호의 인명재산은 풍전등화와가튼 위협을받고잇스므로 지난소화구년도에 전기위협을 면하고자하는일책으로 남북해안에 방파제(防波堤)를 축조할전제로 측량급설계까지완료하고 당국의 팔만원축조비예산에 지방민으로서 팔천원의부담까지 내정되엿다함은 본보에 루보한바이어니와 작년여름의 대풍수해로 전기계획은지연중지상태에빠젓다 그러나 또다시위험은 업지안흘것이므로당지주민들은 생활에 여력이업슴을불고하고 지난이일 방파제기성회를열고 방파제축조비중 지방부담금 팔천원급주비금 일천오백원 합구천오백원의 거출방책을강구한바 지방각단체와개인에게 기부금을 밧자는결의로되여 당지어업조합(彌助漁業組合)이삼천원 림겸해산회사(林兼海產會社)이삼천원 지방주민삼천오백원의 기부금을내정하얏는바 어업조합과 지방주민은 이미승락하얏스나 림겸(林兼)회사에는 아직교섭지안혓스나 이방파제문제는 가장만흔관계를 가진 해회사와 동시에 지방의 존망문제이니만큼 그회사의 찬의와 협조를밧으리라고 기대한다는데 이방파제기성회역원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 金丸東 副會長 梁沂淡 同 橋本國松

豪雨繼續으로 交通事故續出

【新義州】 지난사일의 폭풍우로 말미아마 평북의 농작물은 완전히소생되엿는데 그반면에 평북동흥(東興)관내 송전(松田)주재소에서 약삼『키로』되는 상류로면삼십『미돌』에 사일밤큰 암석(岩石)이떠려저 자동차교통을불론 일반마차의통행이 두절되여 방금관계토목과구에서 출동하야 복구공사에 큰렴중이라한다

먹는물에발써섯다고 廿餘洞民이暴行

【清州】 청주읍 외덕정(外德町)에 사는 류근택(柳根澤)(二八)이라는사람은 전기 주소로온지 얼마되지안헛는데 그동리사람이먹는 깨끗한 우물에서 지난사일정오경 발을 씻첫는바 이것을알게된 그동리젊은사람 라순룡(羅順龍)(二七)등 이십여명이 작당하야 구타중상을 입피엇다하는대 전기피해자는 지난오일 청주서에 고소하엿스므로 동서에서는 관계자를 소환하야 방금취조중이다

甘雨繼續으로 移秧極히順調

【報恩】 충북 보은군내에는 한재로인하야 삼할이상 이앙치못하얏던바 지난사일아침부터 감우가 내리기시작하야 이삼일계속되여 미급하얏던 이앙이 극히 순조로 완료될모양갓다고한다

金鑛石竊取한 鑛夫三名逮捕

【新義州】 평북창성군창성면갑암동(昌城郡昌城面甲岩洞)산무번지 광부 강영조(姜永祚)(二一)는 갑암광업회사(甲岩鑛業會社)의 최창언(崔昌彦)의 소유광구에서 종사하고잇는중 지난륙월말일오전열한시경 그광산발파주임 김정진(金正鎭)을속이고『남포』두개『뢰관』두개를횡령한다음 가튼동리에사는 농부 최창도(崔昌道)(二五) 강익제(姜翊濟)(三四)최린조(崔麟祚)(二四)등세명과 공모하야 자기가일하는 광산에서금광석(金鑛石)삼백칠십관 시가이백원을 절취한사실이 발각되여 방금창성서에서 취조를밧고잇다한다

鶴巢里簡校에 千圓喜捨

姜興濟氏로부터

【新高山】 함남안변군 위익면학소리 간이학교(鶴巢里簡易學校)는 보통학교로의 승격운동에 노력하는중 장정연(張正演)씨외멧분의 활동으로 대령상산주 김인귀(金仁奎)씨의 륙천원회사를 비롯하야 사회의 만은후원을기대하는데 칠월일일에 신고산강홍제(姜興濟)씨로부터 일천원을도회사하야 씨의성의에 칭찬이자자하다고한다

東海卵島附近서 船員一名失踪

【長箭】 동해란도(東海卵島)부근해상에서 승조원이십칠명이탄권착선(巾着船)의선원한명이 행방불명으로된 사실이생겻다 그사실을 드른바에의하면 지난이일 오후칠시경장전 향뢰사무소(香椎事務所)의 소유인권착선 가덕환제이십이호(加德丸第二十二號)에 승조원이십팔명이타고 신포(新浦)방면으로 정어리흡입으러 떠나 통천군란도(通川郡卵島)부근에이르러 기관부와 선장이하는 전부잠을자다가 밤열두시경에깨여보니 본적을경북 연일군흥해면곡강리(興海面谷江里)안창수(安昌洙)(三三)가 업슴을발각하고 사방으로 차저보앗스나 결국찻지못하고 다시 장전으로 입항하야 경찰에사실을보고하엿다한다 그날밤에 술을먹다가 취중에 안창수와 상대로 싸홈한자가잇다하여 경찰에서의심하야 취조한바 아모혐의는업다고하며 취중에 배전에나 섯다가 바다에떠러저 죽은듯하다고한다

大邱

▲時日 七月八日午後七時半
▲場所 大邱公會堂

바리톤名歌手 金大根獨唱會

◇入場料 一般五十錢 學生三十錢 (本報讀者半額으로優待)
◇主催 朝鮮日報大邱支局

古邑

▲時日 七月十七日午後九時半
▲場所 古邑敎會堂

西朝鮮少年少女懸賞童話會

◇主催 古邑基督靑年勉勵會
◇後援 朝鮮日報古邑支局

長篇小說 어머니 【88】

李箕永作 鄭玄雄畵

第二、母性篇 四、아들의상경(八)

『왜 그리처다보서요? 솟을거렷다는것이 그러케 이상하서요?』

숙희가 뭇는바람에 인숙은 비로소 표정을 고치면서

『아니 그런게아니라、사내도 잘 못거는 솟을 어데서 배웟느냐 말이지、그게 이상하지안허요!할머니!』

『글세 내말이 그말이라우』

로파는 자기가 끄낸말이 재미잇게 진전되는 바람에、역시 신이나서 맛장구를 치며 대드렷다。

『웨이상해요! 솟거는것을 배운 내력을 드러보시면 조곰도 이상할것이 업답니다』

『어듸 그럼 이야기좀 해봐요!난 좃시모르겟는데—』

인숙이는 숙희의말을듯고 따고 덤빈다。

『웨 배우고 십흐서요! 그럼월사금을 내서요!』

숙희는 비로소 이러케이야기의서두를 끄낸다。

『솟거는것을 배운 내력을 말할테니 드러보서요!내가 이럭 저럭 서울살림이라고 시작한지가 륙칠년되지 안허요—그동안에 이사를 멧번이나혯는지 아시겟서요?』

『글세……들은 만히단녓겟지—』

『일년에 서너차례식은 보통이엿대요。어느해는 한두달이멀너서 오늘치나 이사를 하지안히엿겟서요—멧색 살림사리라고 시작하기는 저—운이동부터 처음인데 엇더튼지 그해안으로 다섯번을 옴기엿스니 무던하지 안허요、그러케 이사를 다니니까 풍도 별차랑을 다반나게 되여서 솟을 잘거는이도 잇섯지만 아주미련한이도 잇수벗요。그럴때는 어떠케 한니까?다시 사람을 구할수도 업고해서 어더내가 한번거려보지고 해보앗지요!그러케 한두번 해보니까 차차미툼이나겟지요、우리가 눈섬미는 잇서서 한두번 불것은 할줄아니까요!』

하고 숙희는 해죽이 웃는다

『올치! 따는 그러켓구려!』

로파는 감심한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맛장구를 친다。

『그러치만 난 못하겟는걸—아니 허선생은 무얼하시기에?』

인숙은 의아해서 숙희를 처다본다。

『그때도 잡지사에를 단엿지요 그리고 집에잇스면 뭐할줄아나요—오히려 그런일은나만큼도 할줄모른답니다。』

『하하—참、별일도 다보지…친주어머니가 그런일을 할줄는가 아럿서!』

하고 인숙은 인생의 무상을 다시금한탄하는듯이 허공을 우슴을 웃는다。

『그러기에 벌을 밧느라고 그런가부다 하엿수만요—시굴서 살때에는 비단옷도 무겁다고 타박을 하며 분에실은 친조처럼 가만이 안저서 남이해다주는 밥만 먹으면서도 앙짜를 부렷지요。그런데、지금은 비단옷은 커녕、무명것도 업서서 못입게되고 조석으로 천역을 하기에 손등이 터저서 물일을 못보는 신세가되엿스니 딱한노릇이 아니여요 시굴서는 빨내한번을 안해보다가……』

숙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무심히 말하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고소를 것잡지못한다。

『웨 안그랫겟수!하지만 그대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니까 조치안우?——그야말로 금의옥식에 싸혀잇기로니、먹는것이 살로가지 안흐면 뭐하겟나베!』

『암 그다 일을 말린가요、마음 편한게 그저 제일입니다!』

하고、로파는 인숙의 말을응의한다。

『아닌게아니라、그는 그래요 지금이야 마음한가지는 무척 편하지요 누구하나 걸리는데가업스니까요、잠을 한나절식 자거나 말거나 도무지 상관업스니까요』

『그것보지、잘살고 맘고생을밧는것보담、못살더라도 맘편한것이 행복이로란 아러요』

『그러치만 너무도 가난하니까 인제는 또、남과가티 좀잘살고 십것지요—사람의 마음이란참 요사스러운것이여요 그전에 넉넉히살때는 돈이 도무지귀한줄을 몰낫더니……인제는 동전한푼이 새로워서……내가 내생각을해도 어떠케 좀스러워젓는지 몰나요!』

『그러기에 사람이란 겨난을 해바야 하는게랍니다。이일도 당해보고 저일도 당해보아야 비로소 세상속을 아는게니까요……그가운데 배우는것도만쿠…』

『참 그래요—도적질하나만 빼노코 다—해보랫다구…여러가지 겨난을 만히 치러보아야 속이 터지는게지요!』

그들은 밤이 가는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 밧다가안스방에서 자정을 치는시게소리를듯고 제각기 헤여저 드러 숙희는 자는 진수를 둘쳐업고갓다。